

文學碩士 學位論文

尙州 青里 6~7世紀 石室墳에 대한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金 鎮 亨

2007年 6月

尙州 靑里 6~7世紀 石室墳에 대한 연구

指導教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金 鎮 亨

金鎮亨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6月

목 차

I. 머리말.....	1
1. 연구사.....	2
2.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4
II. 청리 석실분의 구조와 유형.....	7
1. 청리 석실분의 입지	7
2. 청리 석실분의 구조.....	12
3. 청리 석실분의 유형.....	18
1) I 유형 석실분.....	18
2) II 유형 석실분	18
3) III 유형 석실분.....	20
4) IV 유형 석실분.....	21
III. 청리 석실분의 유형별 출토유물 편년.....	24
IV. 청리 석실분의 성격	36
V. 맺음말.....	41
참고문헌.....	43
Abstract.....	46

<표 목차>

표 1. 석실분 형식분류 주요 연구	11
표 2. 청리 석실분 현황표.....	34

<도면 목차>

도면 1. 지형과 고충군 분포로 본 고대 영남의 교통로	8
도면 2. 상주 청리유적 및 주변 유적 분포도.....	9
도면 3. 청리 석실분 제유형	11
도면 4. 횡구식석실분의 현실 평면.....	12
도면 5. 횡구식석실분의 현실 평면형태 도수분포도.....	13
도면 6. 횡혈식석실분의 현실 평면	13
도면 7. 횡혈식석실분의 현실 평면형태 도수분포도	14
도면 8. 횡구식석실분 현실규모 도수분포도	14
도면 9. 횡혈식석실분 현실규모 도수분포도.....	15
도면 10. 횡혈식석실분 연도 위치 도수분포도.....	15
도면 11. I 유형 석실분	17
도면 12. II 유형 석실분.....	18
도면 13. III 유형 석실분	19
도면 14. IV 유형 석실분	20
도면 15. I 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23
도면 16. II 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26
도면 17. III 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28
도면 18. IV 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30
도면 19. 청리 석실분 계층성 모식도.....	36

I. 머리말

6~7세기의 영남지방은 앞 시기의 일반적 묘제인 수혈식석곽묘 및 경주지역 및 경주인근의 지역에서 유행한 적석목곽묘는 점차 사라지고 추가장이 가능한 석실분¹⁾의 사용이 보편화된다. 즉 특정개인을 위한 매장시설이라 할 수 있는 수혈계 매장시설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횡혈계 묘제로의 전환은 관념적인 변화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있어 크나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으로 신라의 영토확장, 불교의 공인, 율령의 반포 등 여러 가지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변동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석실분은 이전과는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석실분의 수용은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큰 변화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즉 고고학의 궁극적인 목적인 당시 6~7세기대의 사회복원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고분문화의 속성분석을 통해 한 지역정치체의 사회문화적인 양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글에서는 상주 청리지역에서 확인된 6~7세기 석실분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석실분의 내부주체시설의 석실형태, 규모 등의 구조분석을 통해 유형을 설정해 보겠다. 고분의 축조에 있어서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의 변화는 기술적인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측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석실의 구축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석실자체의 규모, 벽석을 쌓는 방법, 석실의 구성 등의 관찰을 토대로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이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유형별 석실분에서 출토된 토기편년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 석실분의 존속시기의 분석을 통하여 당시 청리 지역 사회변화의 일단면을 살펴보자 한다.

1) 석실분의 용어문제에 있어서 연구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석실과 석곽의 가장 큰 근거는 공간의 유무라고 판단되는데 즉 이글에서 말하는 석실분은 시신의 매납 이외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석과 곽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北野耕平, 「棺・櫛・室・壙について」『羽曳野市史』2, 1994.

金昌鎬, 「嶺南地方 橫穴式石室墳 연구에 대한 몇가지 提言」, 『嶺南考古學』22號, 1998.

1. 연구사

상주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96년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진 지표조사²⁾를 시작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실시한 청리³⁾, 신흥리⁴⁾, 성동리⁵⁾, 병성동⁶⁾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신상리⁷⁾, 현신동⁸⁾, 병성동⁹⁾, 성동리¹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오대동¹¹⁾, 유곡리¹²⁾ 고분군도 현재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아직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지만 상주 복룡동 유적이 확인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굴조사의 증가에 비해 고고학적인 연구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상주지역 고분에 대한 연구성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주지역 고총고분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로 김용성¹³⁾과 김대환¹⁴⁾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용성은 신라의 고총고분과 그와 비견되는 대형고분군들의 권역을 정하고 낙동강 상류역의 낙산동고분군, 병성동고분군, 신흥리고분군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고총은 신라권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묘제를 수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김대환은 지역성이 출현하는 과정을 경주지역 고총이 확산되어 그 변형이 지역성을 띠는 것, 어느 시점에 새로이 창안된 것, 새로이 창안된 지역성이 다시 주변 고총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상주의 세장방형 병성동식 횡

2) 嶺南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事, 『牙浦·咸昌間의 文化遺蹟-中部內陸高速道路 豫定區間의 地表調查-』 1996.

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青里遺蹟(I ~ VIII)』, 學術調查報告 第8冊, 1998.

-----, 『尙州 青里遺蹟(IX ~ X)』, 學術調查報告 第14冊, 1998.

-----, 『尙州 青里遺蹟()』, 學術調查報告 第27冊, 1998.

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新興里古墳群(I ~ V)』, 學術調查報告 第7冊, 1998.

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城洞里古墳群』, 學術調查報告 第40冊, 1999.

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屏城洞·軒新洞古墳群』, 學術調查報告 第107冊, 2001.

7)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尙州 新上里古墳群(I · II)』, 學術調查報告 第30冊, 1998.

8)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尙州 軒新洞古墳群』學術調查報告 第31冊, 2003.

9)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尙州 屏城洞古墳群』學術調查報告 第8冊, 2001.

10)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尙州 城洞里古墳群II』學術調查報告 第32冊, 2003.

11) 中央文化財研究員, 『尙州 午臺洞遺蹟』發掘調查報告書 第41冊, 2004.

12) 嶺南文化財研究院, 『尙州 柳谷里古墳群』學術調查報告書 第17冊, 1999.

13) 김용성, 「新羅의 高塚社會」『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요지 동아시아 대형고분의 출현과 사회변동』第11輯,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14) 김대환, 「신라 고총의 지역성과 의의」『新羅文化』第23輯, 2004.

구식석곽이 교동, 대구 등의 신라의 요충지에서 나타나는 횡구식석곽과 구별되는 지역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홍지윤¹⁵⁾은 상주지역의 고분을 토대로 경북 서북부지역의 초기정치집단에 대한 연구로 출토유물과 조합상을 분석하여 상주지역의 토광묘를 정리하였다. 그는 상주지역의 북부에 위치한 함창분지에 3세기 중엽 경부터 토광묘 축조집단이 등장하였고 이후 4세기 전반부터 4세기 중반까지 성동리와 신흥리에 동일한 전통의 유구가 축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4세기 중반 이후 상주 남부의 청리지역 토광묘에서 신라화가 가장 먼저 진행되며 4세기 후반에는 성동리고분군의 축조집단이 신라의 지배체제내로 편입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흥리고분군 축조집단은 4세기 말 석곽묘가 축조된 이후에도 토광묘 단계와 비슷한 조합으로 유물이 부장되고 있고 무기류의 부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신라화가 진행된 성동리 집단과의 대립관계가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홍지윤¹⁶⁾은 5세기대 상주지역의 정치적 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앞의 논고를 보완하여 신흥리고분군에서 나타나는 토광묘의 지속과 고배 부장의 빈약함을 신흥리고분군 축조집단의 독자적인 세력유지로 파악하고 이를 상주분지의 다른 지역과는 차등적인 신라의 변경지배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상주분지의 고분과 청원 미천리지역 고분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신라의 진출에 따른 문화의 확산으로 이해하였고, 5세기 후반에는 신라세력이 금강수계권으로 진출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한 교통로로서의 연구로 산본효문¹⁷⁾은 신라의 호서지방 진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호서지방에서 조사된 신라고분을 3단계로 설정한 후, 호서지방에 진입한 세력을 한강계와 금강계로 나누어 규정하여 죽령을 넘어 청원 등에 나타나는 신라식 석실묘들의 유입로를 상주지역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성주¹⁸⁾는 조사된 각 고분군의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상주지역의 이동양식 토기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이동양식토기의 확산이 신라세력의 정치적 확산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에 이견을 가지며 이동양식토기의 생산은 각 지역의 제작자의 기술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되었으며 함창 분지의 신흥리지역에서의 고배, 대부분경호 등의 출토가 빈약한 것을 신라의 정치적 영향에 의

15) 홍지윤, 『嶺南西北部地域 初期政治體의 動向』,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1999.

16) 홍지윤, 「상주지역 5세기 고분의 양상과 지역정치체의 동향」 『嶺南考古學』 32, 2003.

17) 山本孝文, 「고분자료로 본 신라세력의 호서지방 진출」 『호서지방 신라문화의 이해』, 2001.

18) 李盛周, 「技術, 埋葬儀禮, 그리고 土器樣式-尙州地域 洛東江以東 土器樣式의 成立에 대한 解釋 -」 『韓國考古學報』 52, 2004.

한 것이 아닌 제작자의 기술과 함창분지의 지역집단이 가진 제의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서 최진녕¹⁹⁾은 상주지역의 고분 자료를 바탕으로 5~6세기대 중심묘제로 채택되고 있는 석곽묘를 형식분류하고 시기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주지역의 석곽묘는 5세기 전반을 전후하여 축조되기 시작하여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6세기 전중반까지 중심묘제로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상주지역 특히 상주분지의 병풍산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확인되는 이음식석곽묘가 6세기 전반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6세기 중반이후 상주지역의 고분은 횡구식석실묘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리지역에서는 상주 내 다른 지구에서 볼 수 없는 횡혈식석실묘를 매장주체로 하는 대형의 고총고분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 이 시기 신라의 상주지역에 대한 지배방식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상주지역 고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주로 5~6세기를 중심으로 수혈계묘제에 관심을 가져온 반면, 6~7세기대의 석실분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전의 수혈계 묘제에서 출토되는 토기에 비해 횡혈계 묘제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기종과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 변화의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토기 이외의 공반자료가 부족하다는 점들이 큰 작용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2.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앞서 살펴본 최진녕의 지적과 같이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상주지역 묘제의 양상을 살펴보면 상주 청리지역의 6~7세기 대의 묘제는 상주 내 다른 지역의 묘제와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 시기의 상주지역 묘제는 횡구식석곽묘가 주를 이루는 것에 반해 청리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대형의 횡혈식석실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 이러한 횡혈식석실분이 유독 청리지역에서만 확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리지역에 횡혈식석실분이 등장을하게 된 것을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삼국사기의 문헌기록인 ‘사벌주에 군주를 두었다’라는 기사²⁰⁾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서의 위치를 담당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한다.²¹⁾ 그리고 청리지역 횡혈식석실분

19) 최진녕, 『5~6世紀 尚州地域 古墳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0) 『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 三, 地理 一, 尚州. “…法興王十一年, 梁普通六年, 初置軍主爲上州…”

21)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앞의 보고서, 1998.

최진녕, 앞의 논문, 2005.

의 등장을 금석문자료를 통해 둔전총적인 성격의 신라인의 이동으로 보기도 하고²²⁾, 청동제 대금구의 분석 과정에서 토착세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토착세력에 대한 관리예우²³⁾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청리 횡혈식석실분의 고분 구조라든지 동반유물의 검토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상주 청리지역 석실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 다시피 이전의 묘제인 수혈식묘제와는 달리 석실분과 같은 횡혈계 묘제는 내부구조의 손상없이 추가장이 가능하여 형태 뿐 아니라 장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의 厚葬관습에서 薄葬으로의 전환, 그리고 장례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²⁴⁾ 그래서 석실분이라는 묘제는 이전과는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축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석실분의 수용은 거기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제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큰 변화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고분문화의 속성분석을 통해 한 지역정치체의 사회문화적인 양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실분이라는 묘제가 선행묘제인 수혈식 묘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도와 입구부를 갖추고 있는 형태라는 점이며 이는 추가장을 의도한 구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석실분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추가장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석실분 자체가 추가장이 가능한 묘제인 만큼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살펴볼 때에는 최초로 매장한 유물과 최후의 매장 유물의 시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이 시대의 토기편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추가장으로 인해 묘제에는 어떠한 양상이 확인이 되는가, 출토유물을 통해 추가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추가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시간차는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고 이 시대의 석실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될 때, 석실분의 등장과 의미에 대해서 어느정도 실마리를 풀어나갈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간적으로는 6~7세기까지로 한정하고 공간적으로는 당시 신라지역이었던 상주 청리 유적에서 확인된 석실분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22) 金昌鎬, 「新羅 村落(屯田)文書의 作成 年代와 그 性格」 『史學研究』 제62호, 2001.

23) 朴普鉉, 「統一新羅型 帶金具의 分布와 發生時期」 『新羅文化』 第 23輯, 2004.

24) 金昌鎬, 「신라 橫穴式石室墳의 등장과 소멸」 『新羅史學報』 第 8輯, 2006.

이 글에서는 적석목곽분에서 횡혈식석실묘로의 전환은 장례비를 1/10에서 1/100으로 줄어든다고 보며 이러한 절약은 조상숭배 중심의 제의가 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주 청리 석실분의 유형분류를 시도해보겠다. 이 과정에서 는 석실분에 공통적으로 시설된 구조 중 변화의 모습이 확인될 수 있고, 아울 러 유형분류된 내용이 일정한 관련성이 예측되는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유형분 류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분류기준으로 마련된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상호관련을 이루면서 시설되었는가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유형분류된 석실분의 출토유물을 토대로 편년을 시도해보겠다. 아울 러 출토유물의 편년된 것들을 통해 추가장의 여부도 살펴보겠다. 이러한 것들 을 통해 청리 석실분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청리 석실분의 구조와 유형

1. 청리 석실분의 입지

이 장에서는 청리 석실분이 위치하는 청리유적의 입지와 분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리유적은 상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유적²⁵⁾으로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청하리·하초리 일대에 분포하는데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복합유적이다. 유적은 상주시의 중심가에서 남부를 향해 길고 넓게 펼쳐진 병성천에 의해 형성된 평야의 중간부분 남쪽에 위치한다. 이 평야를 통해 상주에서 김천, 성주를 거쳐 경남서부지방으로 통하는 통로가 일찍부터 개발되어 있었으므로 유적이 위치한 곳은 이러한 지역들에서 상주로 들어오는 관문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도 1) 또한 소백산맥을 넘어 호서지방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중계지점의 역할을 하였으며 충주, 보은 등 외부로의 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였다.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고대부터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써 중요한 지역이었다.²⁶⁾

또한 청리유적 주변에는 삼국시대의 월로리고분군, 원장리고분군, 청하리고분군 등 삼국시대 고분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이글에서 다루는 청리유적이 위치한 기양산 정상부에는 마공산성²⁷⁾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적의 북쪽에는 월로리 산성²⁸⁾이 위치하며, 북쪽으로 약 1.5km정도 떨어진 곳에는 수궁디미산성²⁹⁾이 위치하고 있어 청리유적 주변으로는 많은 유적들이 확인된다.

2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青里遺蹟(I ~VIII)』, 學術調查報告 第8冊, 199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青里遺蹟(IX · X)』, 學術調查報告 第14冊, 199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青里遺蹟()』, 學術調查報告 第27冊, 1998.

26) 상주지역의 고대 교통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鄭永鎬, 「金庾信의 百濟攻擊路 研究」『史學志』6, 1972.

鄭永鎬, 「尙州방면 및 秋風嶺 北方의 古代交通路 研究」『國史館論叢』第16輯, 1990.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학연문화사, 1999.

韓基汶, 「尙州의 歷史와 白華山」『白華山』상주문화연구총서 4,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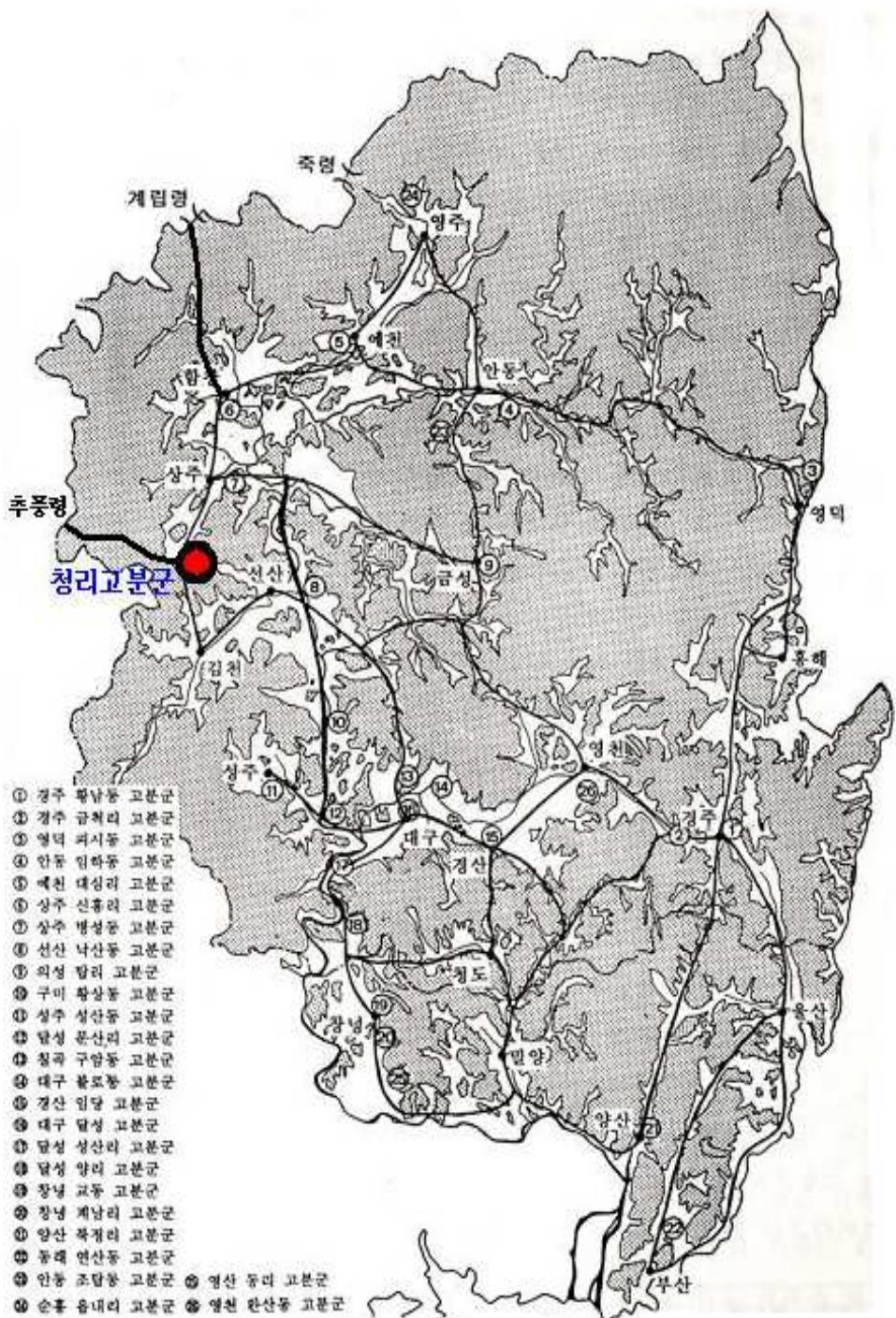
李泳鎬, 「上州」의 州治 이동에 대하여」『尙州文化研究』16집, 2006.

27) 마공산성은 토석흔축의 성으로 건물지와 우물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산성 내에서는 간헐적으로 기와 편과 토피편들이 확인되었다. 尚州文化院, 『尙州의 文化遺蹟』,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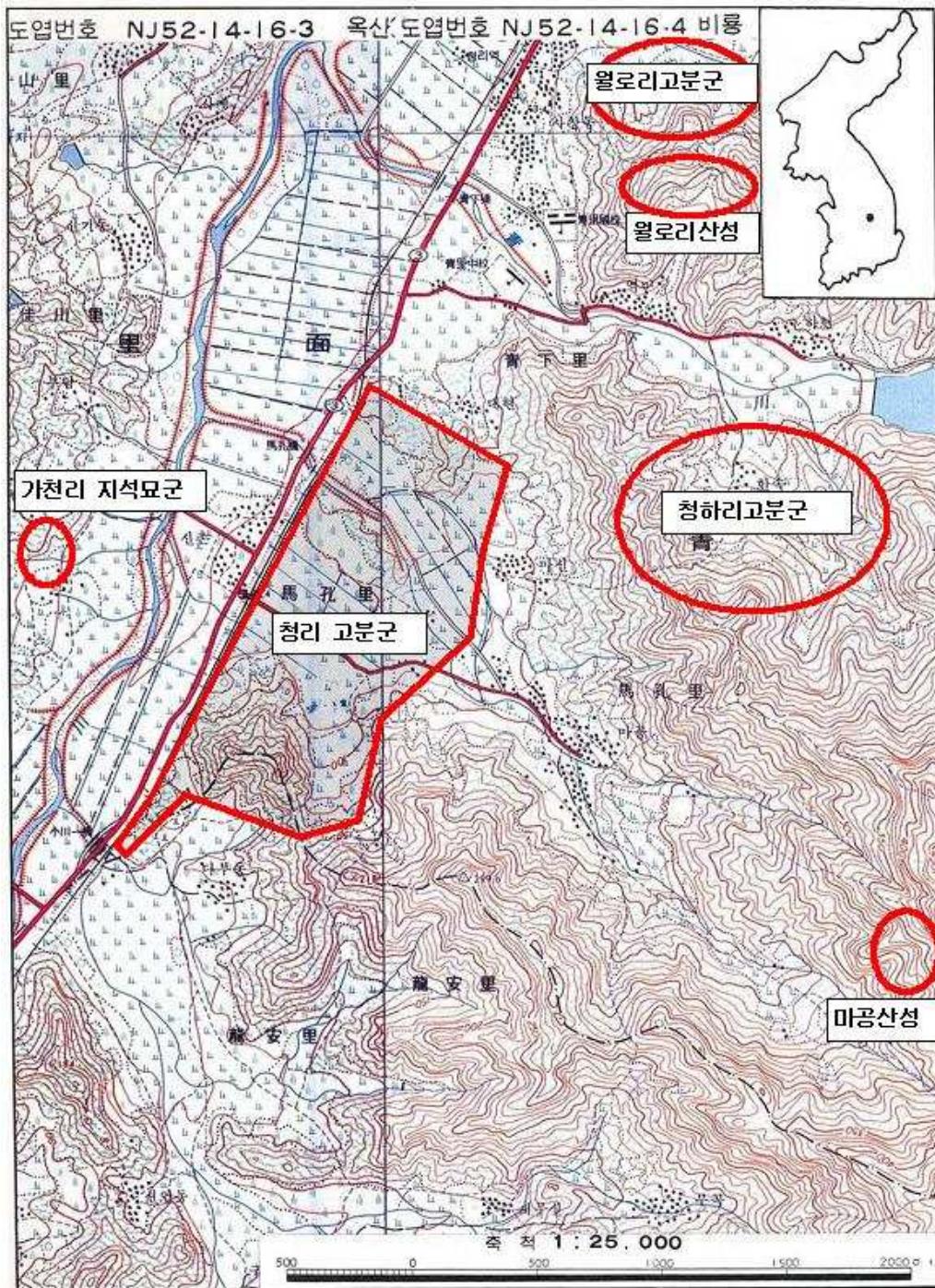
28) 월로리산성은 토석흔축의 성으로 구릉의 9부 능선을 따라 퇴퇴식으로 축조되었다.

尙州市·慶尙北道文化財研究員, 『文化遺蹟分布地圖』, 2002.

29) 수궁디미산성은 갑장산 자락에 위치하며, 포곡식의 토석흔축성이다. 성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토피편이 확인된다고 한다. 尚州市·慶尙北道文化財研究員, 위의 책, 2002.



도 1. 지형과 고종군 분포로 본 고대 영남의 교통로



도 2. 상주 청리유적 및 주변 유적 분포도

2. 청리 석실분의 구조

현재까지 석실분의 구조에 대해서 분류가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주요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영현³⁰⁾은 한강이남지역 횡혈식석실분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현실의 천정부와 현실의 평면형태를 대기준으로 삼고 연도의 단면상 위치와 길이, 석재가공, 시상, 문시설, 배수시설 등을 시간에 민감한 속성으로 보고 19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최병현³¹⁾은 경주에서 확인되는 횡혈식석실묘를 장방형석실과 방형석실로 구분하고 장방형석실이 먼저 출현하고, 방형석실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횡혈식석실묘의 등장 시기를 삼국 중 가장 늦은 시기인 6세기 전반기로 보고 그 분기를 7기로 나누었다.

강현숙³²⁾은 현실의 평면형태에 기준하여 경주 횡혈식석실을 5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연도의 방향은 중앙과 편재로 나누었으나 유형 분류에는 유효한 속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홍보식³³⁾은 연도의 방향을 대기준으로 잡고 석실평면형태, 천장구조, 관대 또는 시상대의 구조 등에 의해 형식분류하여 총 7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기준	소기준	형식분류	비고
조영현	현실 천정부, 평면형태	현실의 세부형태	19형식	
최병현	석실형태, 천정구조	연도의 방향	A, B형식 각 1~3형식	
강현숙	석실형태, 연도위치	관대, 시상대, 석침, 족좌 등 주검시설	I ~ V 유형	
홍보식	연도의 방향	석실형태, 천정, 관대 및 시상대 구조	5유형, 각 유형별 1~5형식	

표 1. 석실분 형식분류 주요 연구

기존의 연구에서 석실분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위의 표 1과 같아

30) 曹永鉉, 『三國時代 橫穴式石室墳의 系譜와 編年 研究 -漢江 以南 地域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31) 崔秉鉉, 「新羅 石室古墳의 研究-慶州의 橫穴式石室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第5輯, 1988.

32) 姜賢淑, 「경주에서 횡혈식석실분의 등장에 대하여」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1996.

33) 洪潛植, 『6~7세기대 新羅古墳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연도의 위치, 현실의 평면형태, 천장구조, 시상대의 구조, 판대구조 등 연구자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분류를 너무 세분화한 나머지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며, 각 분류상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분류의 기준속성을 잡을 때는 분류대상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한 요소여야 할 것이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주 청리 석실분 중 확인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석실분 분석에 유의한 속성을 추출하고 그에 따른 유형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도 3. 청리 석실분 제유형

일반적으로 석실묘는 연도의 유무에 의해 횡구식석실분과 횡혈식석실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횡구식석실분은 추가장을 전제로 한 출입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횡혈식석실분과 동일하나 횡혈식석실분처럼 현실에 연도를 달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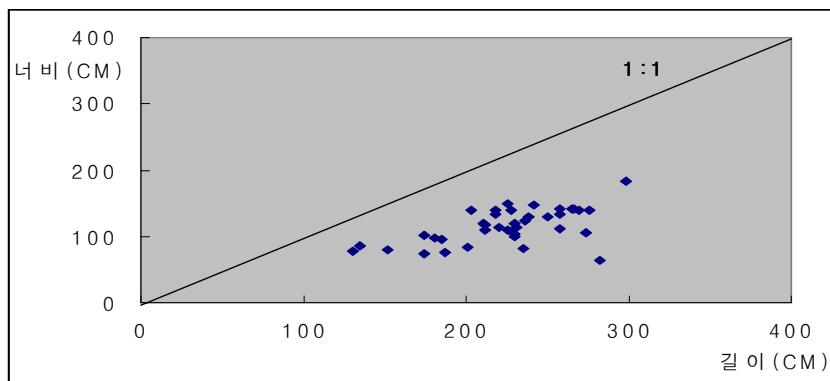
실한 출입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출입시설이 묘도와 폐쇄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횡구식은 현실과 묘도로 구성되고, 횡혈식은 현실과 연도 및 묘도로 구성된 구조로 양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연도의 유무이다.

따라서 횡구식석실묘는 현실 한 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기고 축조한 뒤 묘도와 트인 입구를 통하여 피장자를 매장하고 입구와 묘도를 석재와 흙으로 채우는 형태라 할 수 있고, 횡혈식석실묘는 현실과 통하는 연도를 단순한 출입로가 아니라 복도로서의 기능이 갖추어진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이 글에서는 청리고분군에서 확인된 석실분 가운데 연도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횡구식석실분 38기, 연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횡혈식석실분 29기³⁴⁾를 대상으로 살펴보자 한다.

석실분의 분류기준에 대한 속성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현실의 평면형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볼 때, 석실분의 계보 및 변천을 판단하는데 유의한 속성이라고 생각된다. 석실분의 평면형태가 가령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한다고 하여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파악한 것³⁵⁾과 고구려와 신라 지역에서는 방형이 우세하고 백제 지역에서는 장방형이 우세하다고 파악한 것³⁶⁾이 있다.

먼저 청리 석실분에서 횡구식석실분은 현실의 평면비에 의해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 4의 분포도와 같이 장방형은 길이/너비의 평면비가 1.46:1~2.42, 세장방형은 2.42:1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 4. 횡구식석실분의 현실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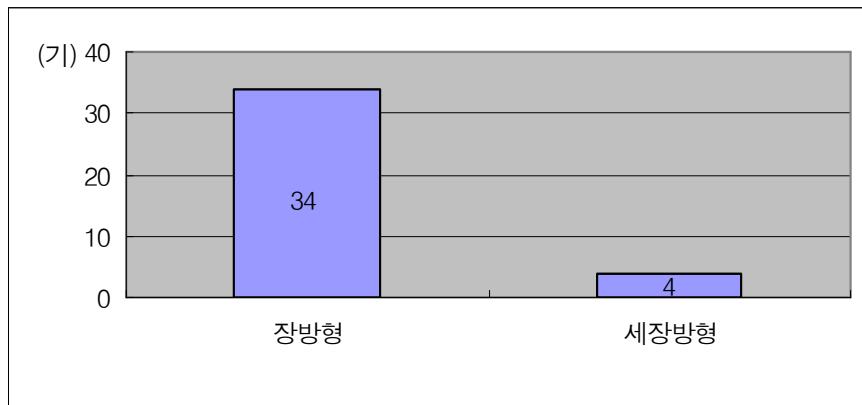
34) 청리고분군 보고서에는 횡구식석실분을 총 58기, 횡혈식석실분을 총 29기로 파악하고 있다.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앞의 보고서, 199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앞의 보고서, 1998.

35) 김원룡, 「백제고분에 대한 몇 가지 관찰」『백제연구』 개교 30주년 기념 특호,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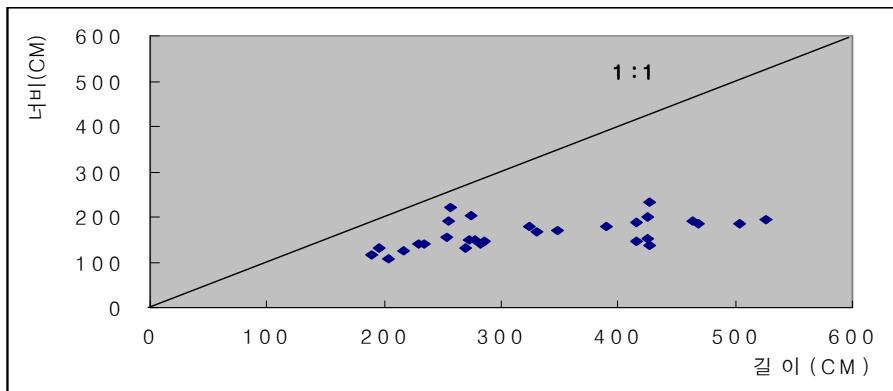
36) 姜賢淑, 앞의 논문, 1996.

그 결과 청리지역 횡구식석실분의 평면형태는 도 5과 같이 장방형이 34기(87%)이며 세장방형이 4기(13%)로 대부분 장방형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도 5. 횡구식석실분의 현실 평면형태 도수분포도

그리고 횡혈식석실분은 도 6의 분포도와 같이 평면비 1.36:1이하의 방형, 평면비 1.36:1~2.21:1의 장방형, 평면비 2.21:1이상의 세장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청리지역 횡혈식석실분의 평면형태는 도 7과 같이 방형이 2기(6%), 장방형이 20기(71%), 세장방형이 7기(23%)로 횡구식석실분과 마찬가지로 장방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도 6. 횡혈식석실분의 현실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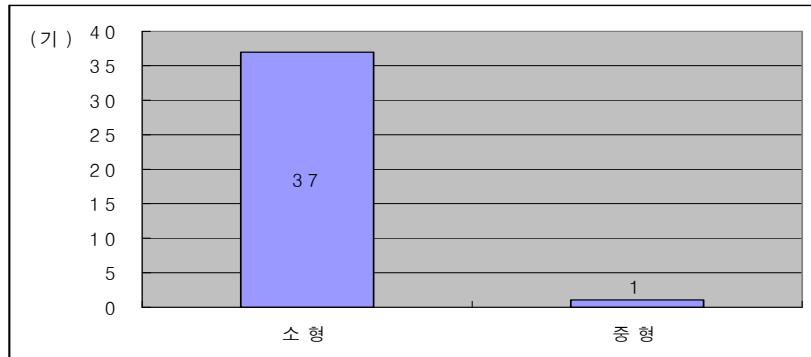


도 7. 횡혈식석실분의 현실 평면형태 도수분포도

따라서 청리 석실분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청리 지역과 같이 대부분의 석실분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단위지역에 대한 고분구조를 살펴볼 때에 현실의 평면형태를 통해 형식분류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합한 것 같지 않다.

다음으로 현실의 규모는 석실분의 축조에 소요된 노동력과 비용에 비례하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는 피장자의 신분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³⁷⁾

청리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에 의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청리 석실분의 규모 양상을 통해, 400cm^3 이하를 소형, $400\text{cm}^3 \sim 800\text{cm}^3$ 을 중형, 800cm^3 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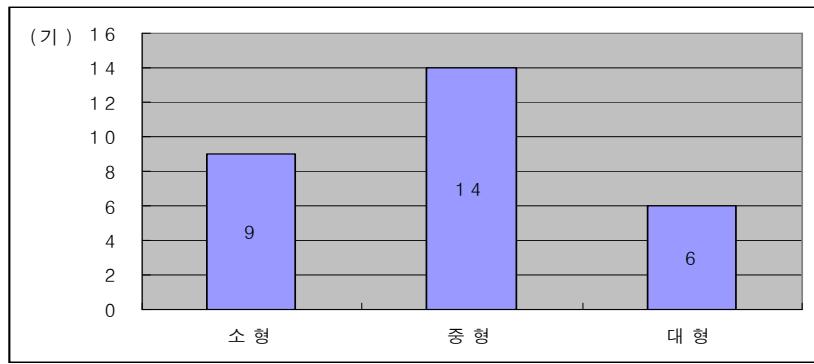


도 8. 횡구식석실분 현실 규모 도수분포도

37) 현실의 규모가 피장자의 위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재인용.

山本孝文, 「百濟 泗沘期 石室墳의 階層性과 政治制度」 『韓國考古學報』 47,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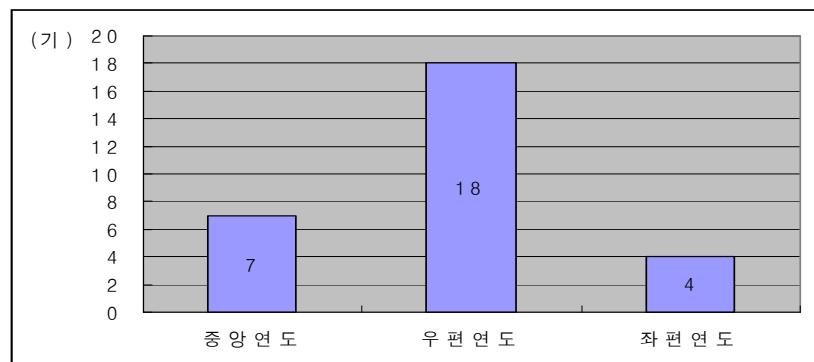
都出比呂志, 「日本古代の國家形成論序説」 『日本史研究』 343, 1991.



도 9. 횡혈식석실분 현실규모 도수분포도

그 결과 횡구식석실분은 도 8과 같이 A-가 17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형으로 확인된 반면, 횡혈식석실분은 도 9와 같이 소형도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중형이나 대형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위의 속성 이외에도 횡혈식석실분은 연도의 위치도 살펴보겠다. 연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석실분의 계보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연도의 위치가 고구려나 백제 지역의 석실분은 우편 연도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반면 경주지역은 좌편 연도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한다.³⁸⁾ 따라서 연도의 위치가 석실분의 계보를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연도의 위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도 10. 횡혈식석실분 연도 위치 도수분포도

청리 횡혈식석실분에서의 연도의 위치는 도 10과 같이 우편연도가 대부분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리지역 석실분에서는 호석이 시설된 것과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

38) 姜賢淑, 앞의 논문, 1996.

다. 호석은 봉분의 유실을 막는 의도로 축조하는 것으로 호석의 유무는 현실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석실분의 축조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석실분의 묘역 면적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청리지역 석실분의 유형분류에 대해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연도의 유무로 횡구식석실분, 횡혈식석실분으로 구분하여 보고 현실의 규모를 통해 4가지로 유형분류해 보고자한다. 그리고 이외의 요소들인 연도의 위치, 호석의 유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아울러 시상대의 위치, 벽석의 축조방법 등 관찰 가능한 요소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청리 석실분의 유형

1. I 유형 석실분(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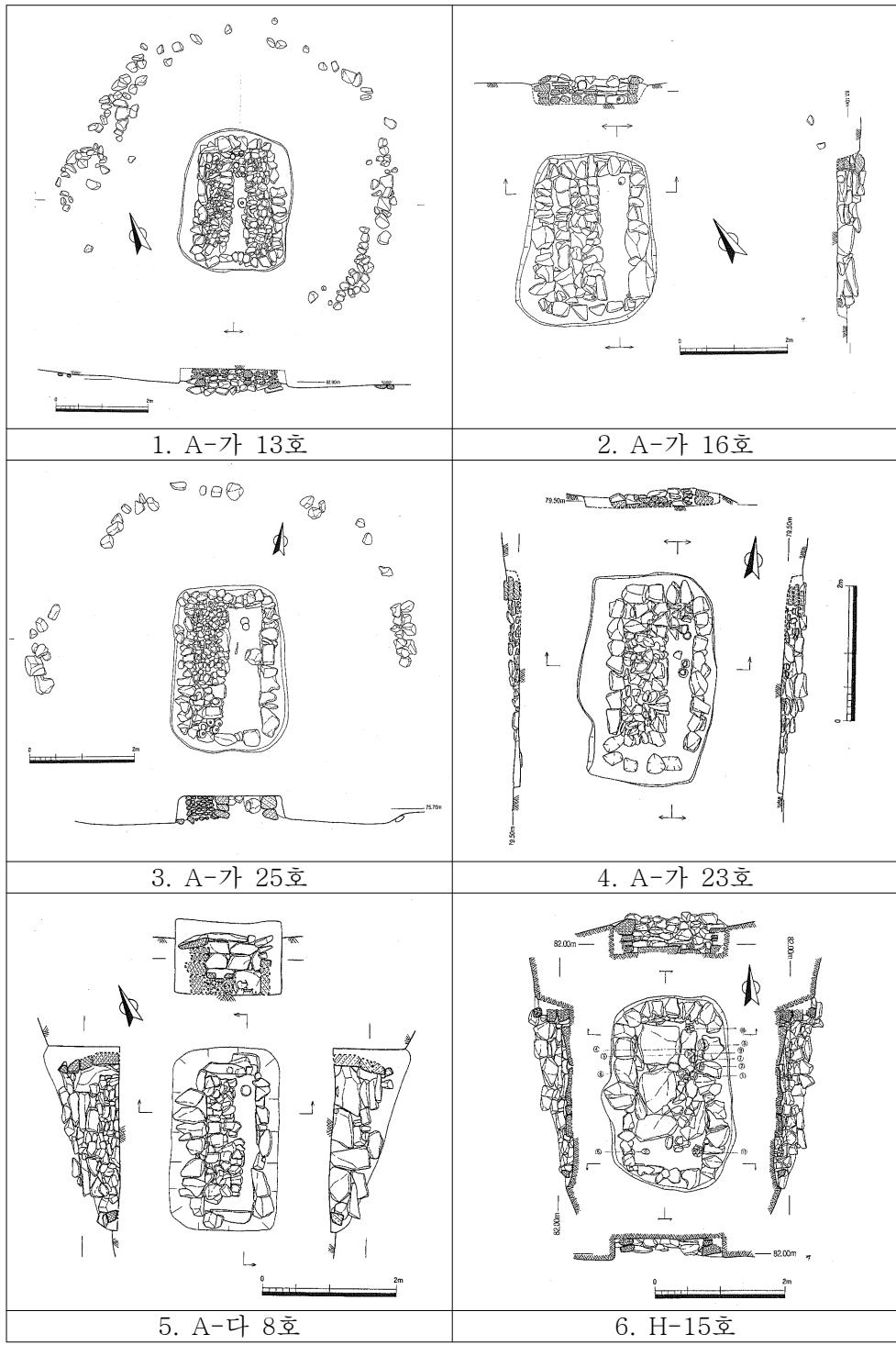
I 유형은 연도가 확인되지 않는 횡구식석실분으로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석실분이 이에 해당된다. A-가 3호, 4호, A-나 5호, 12호, A-다 8호, 13호, H-2호, 3호 등 총 35기로 청리 유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상의 방향은 현실의 장축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시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상의 축조재료는 대부분 할석을 사용하여 테두리를 돌리고 그 내부에 할석과 천석을 채워 설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벽석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A-가 3호, 5호, 23호, 27호, 30호, 15호, 23호 석실분과 같이 석재를 묘광과 평행되게 쌓는 가로쌓기 방법도 있는 반면 A-가 11호, 12호, 18호, 19호, 23호, 28호, 29호, 30호, 33호, A-나 12호, H-2호, 7호, 9호, 13호, 15호 석실분은 묘광과 직교되게 세로쌓기 한 방법도 확인된다. 그리고 A-가 8호, 13호, 16호, 25호, A-나 16호, A-다 8호, 10호 석실분은 한쪽은 가로쌓기하고 다른 한쪽은 세로쌓기한 석실분도 확인된다. 호석은 대부분의 석실분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A-가 11호, 13호, 25호, 30호, A-나 14호 석실분은 1종 호석이 돌려져 있다.

2. II 유형 석실분(도 12)

II 유형은 횡혈식석실분으로 현실의 규모가 소형이다. A-가 6호, A-나 13호, 19호, A-다 6호, 10호, 12호, H-1호, 6호, 8호, 14호, 16호 석실분 등 총 11기가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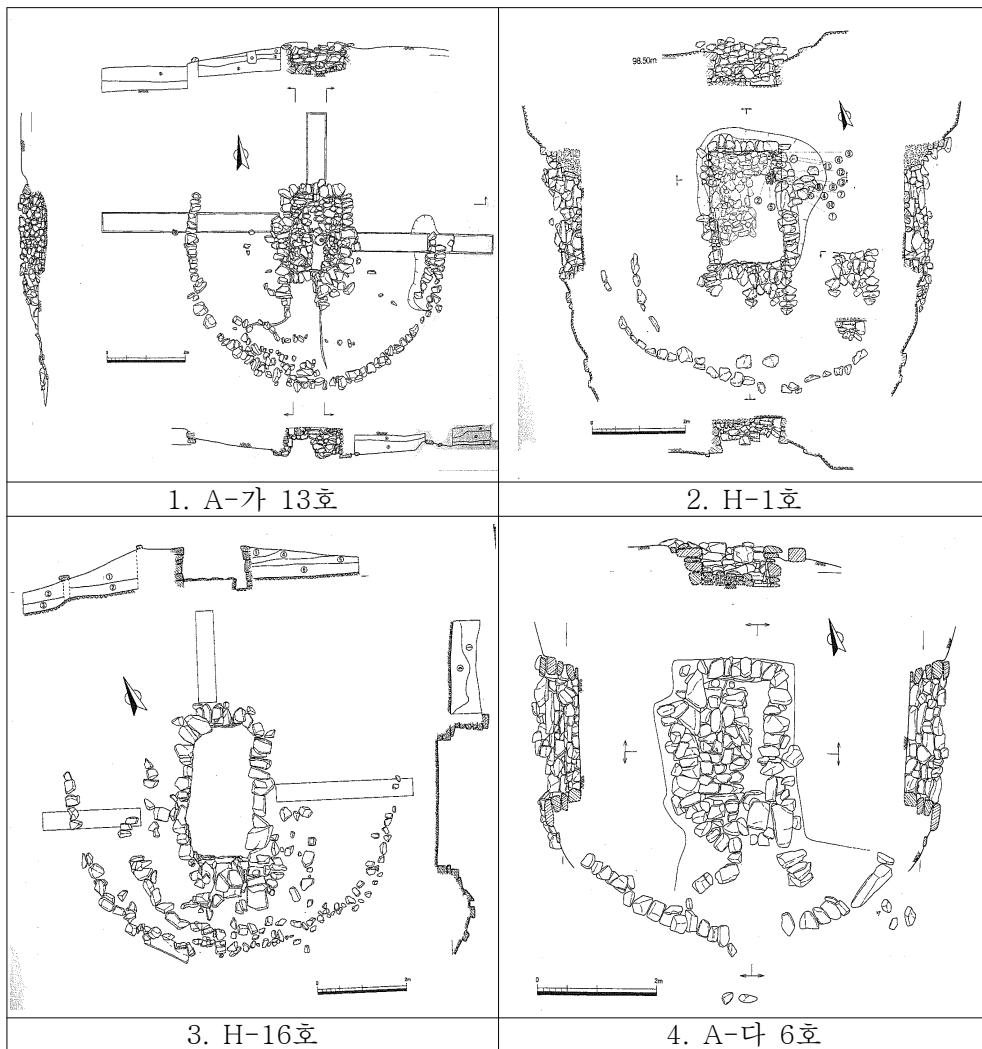
연도의 위치³⁹⁾는 A-가 6호, 13호 석실분이 좌편으로 보이며, H-8호는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모두 오른쪽에 위치한다. 벽석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세로쌓기와 가로쌓기 방법이 모두 확인이 되지만 A-가 13

39) 연도의 위치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연도의 바깥에서 현실 안으로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겠다.



도 11. I 유형 석실분

호, A-다 6호, H-14호, 16호 석실분과 같이 현실의 벽이 들쑥날쑥하여 정연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II유형의 석실분들은 1, 2유형의 석실분과는 달리 호석이 대부분의 석실분에서 확인되며, A-가 13호, H-16호, A-나 19호 석실분과 같이 2~3중의 호석이 돌려진 것도 확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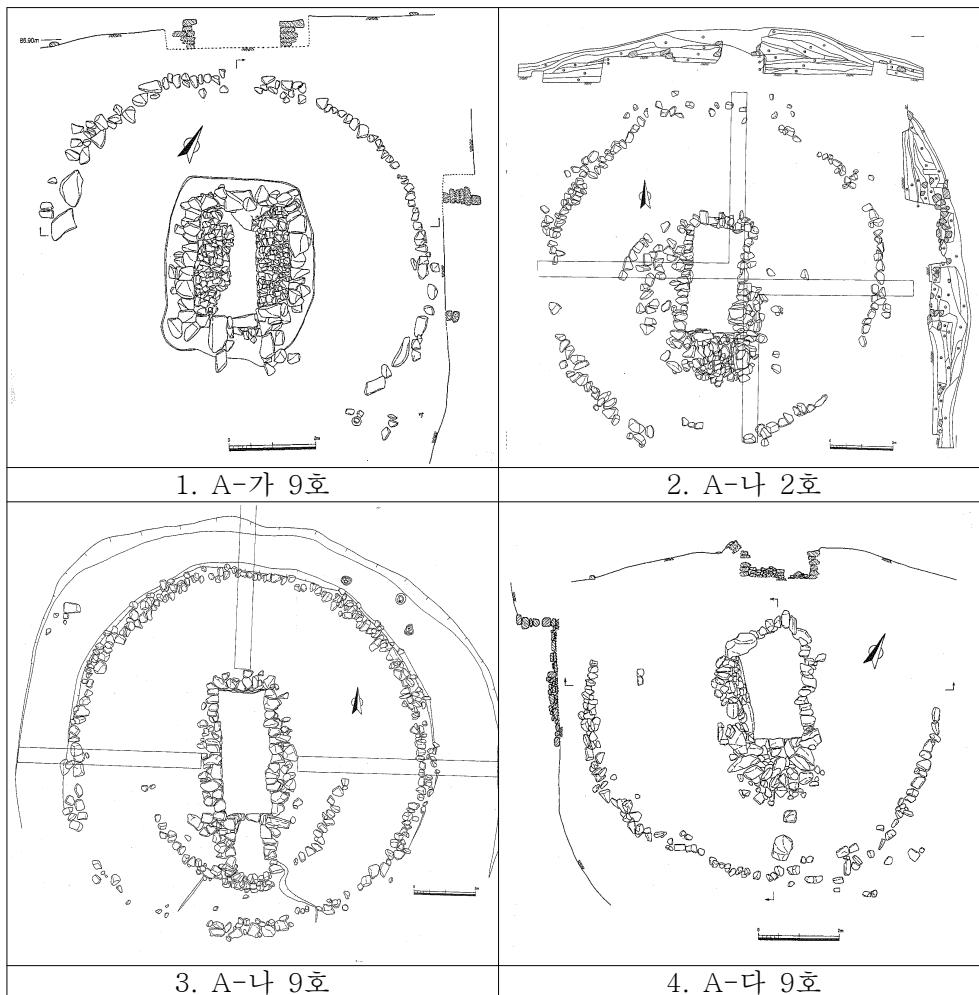


도 12. II 유형 석실분

3. III유형 석실분(도 13)

III유형은 현실의 규모가 중형인 횡혈식석실분으로 A-가 9호, 14호, 24호, A-나 2호, 9호, 10호, 11호, A-다 1호, 5호, 9호, 15호, H-11호, 12호 석실분 등

총 13기가 이에 해당된다. 연도의 위치는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며 A-가 9호, A-나 9호와 같이 중앙에 위치하는 석실분도 확인된다. 좌편연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묘광과 직교되게 쌓는 세로쌓기 방법만 확인된다. 호석은 Ⅱ유형 석실분과 마찬가지로 호석이 대부분 돌려져 있으며 2~3중의 호석을 돌린 것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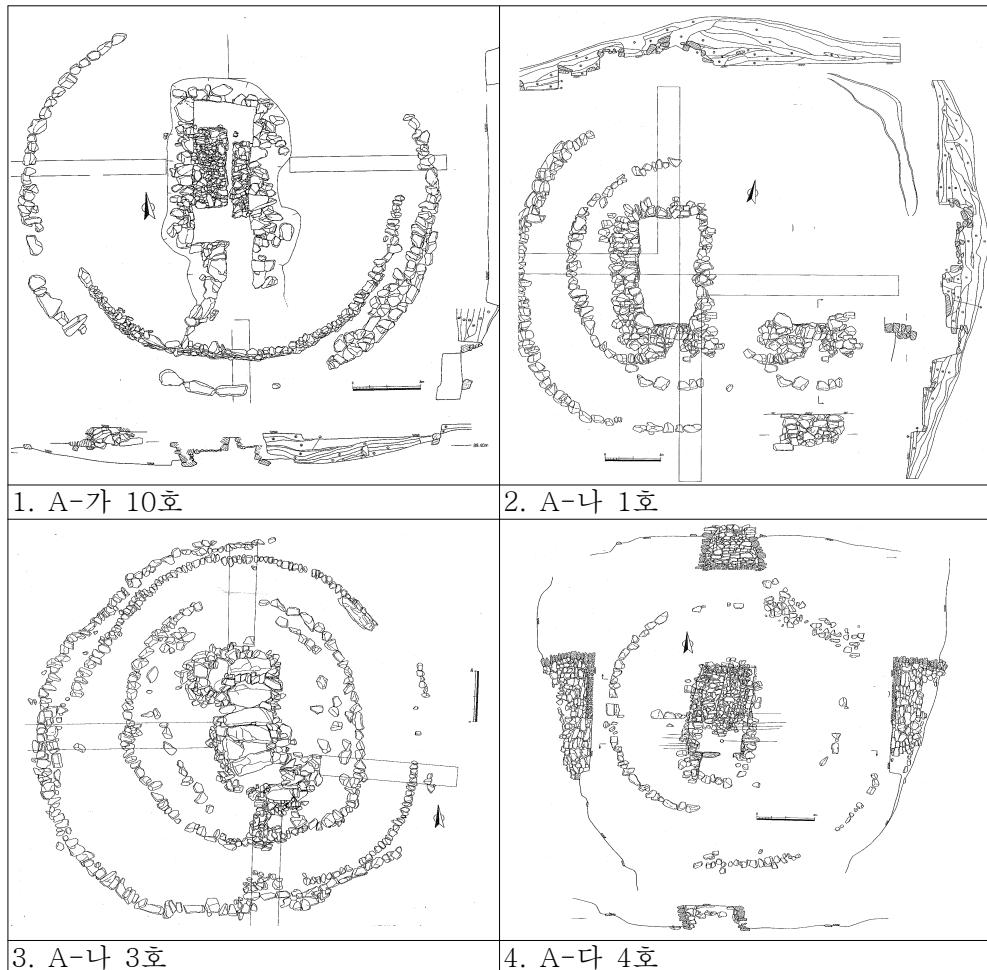


도 13. Ⅲ유형 석실분

4. IV유형 석실분(도 14)

IV유형은 현실의 규모가 대형인 횡혈식석실분으로 A-가 10호, A-나 1호, A-나 3호, A-나 21호, A-다 2호, A-다 4호 석실분 등 총 6기 확인이 되는데 청리 석실분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연도의 위치는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며 중앙연도와 좌편연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대부분

세로쌓기한 방법이며, 호석은 전단계와 유사하지만 A-나 3호와 같이 4중으로
돌려진 석실분도 확인된다.



도 14. IV유형 석실분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 먼저 청리 유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석실분은 I 유형의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획구식석실분이다. 벽석의 축조방법에서 석재를 묘광과 평행되게 쌓는 가로쌓기 방법, 묘광과 직교되게 세로쌓기한 방법, 한쪽은 가로쌓기하고 다른 한쪽은 세로쌓기한 석실분 등 3가지의 방법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II, III, IV유형의 석실분은 벽석의 축조 방법이 대부분 세로쌓기한 석실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II유형의 석실분에서 연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좌편연도와 중앙연도가 일부 확인되지

만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석실분의 축조형태를 살펴보면 I 유형의 석실분에 비해 현실의 벽이 들쑥날쑥하여 정형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II 유형의 석실분들은 I 유형의 석실분과는 달리 호석이 모든 석실분에서 확인되며 일부 2~3중의 호석이 돌려진 것도 확인이 된다. III, IV 유형의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중형과 대형인 석실분으로 연도의 위치는 대부분 우편에 위치하며 호석도 2~4중으로 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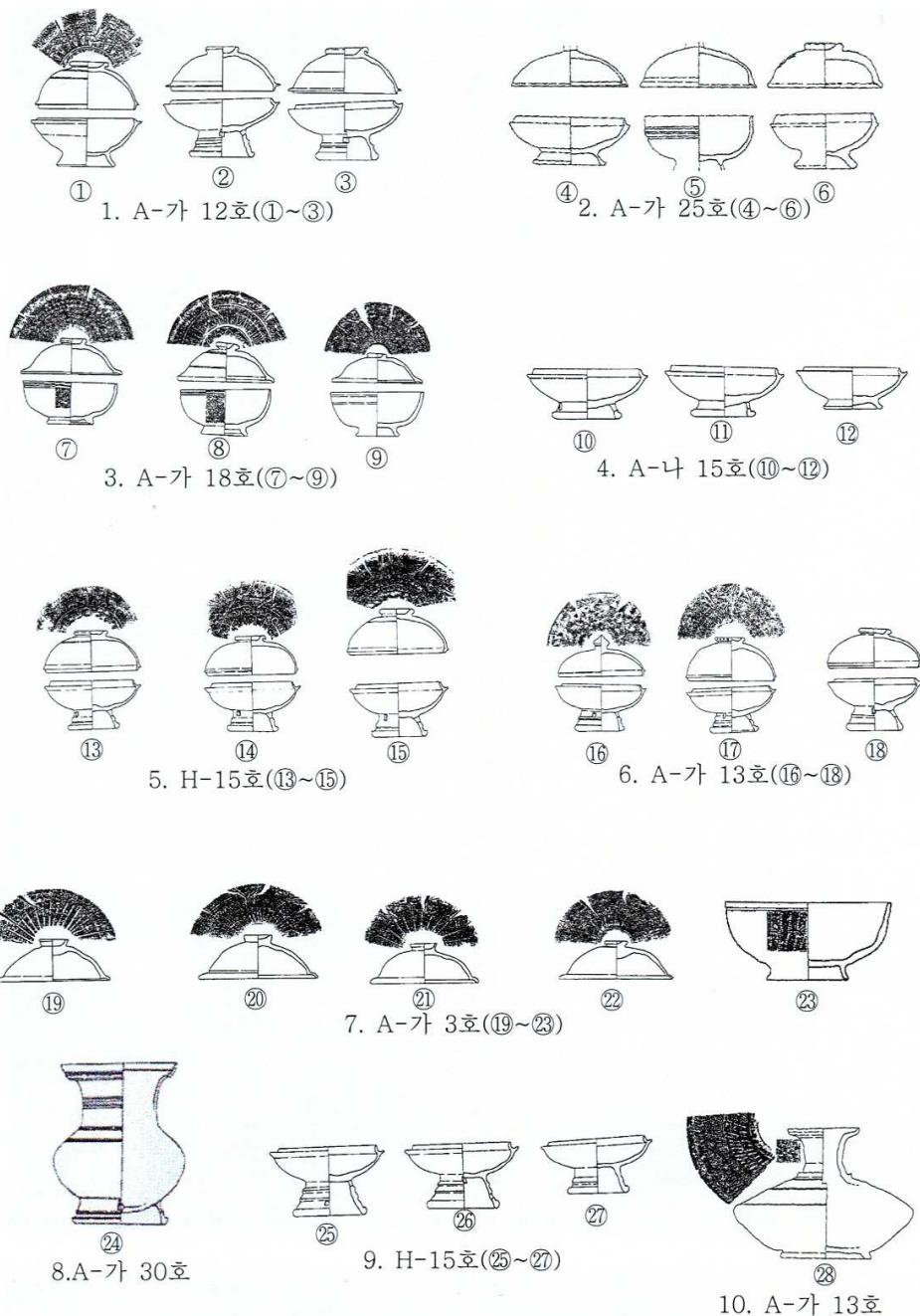
III. 청리 석실분의 유형분류에 따른 출토유물 편년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전 시기의 묘제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에 비해 적은 것은 추가장이라는 매장관념의 변화와 함께 유물 부장에 있어 기존의 厚葬관습에서 薄葬으로의 전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석실분 자체가 추가장이 가능한 묘제인 만큼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살펴볼 때에는 최초로 매장한 유물과 최후의 매장 유물의 시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토유물을 통해 추가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추가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시간차는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물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여 추가장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청리 석실분의 유물 부장양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물의 대부분이 토기류이고, 철기는 철도자와 과대금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일부 석실분에서는 청동제 과대금구류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출토유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토기류는 개, 고배, 단경호, 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병, 부가구연장경호, 합 등이 소수 출토되었다. 여기에서는 각 유형별 출토유물을 검토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 어느정도 편년이 가능한 고배, 부가구연장경호, 병, 합 등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I 유형 출토유물(도 15)

I 유형은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횡구식석실분으로 이 유형에 해당되는 유물의 기종은 고배, 부가구연장경호, 병, 합 등이다. 고배는 모두 단각고배로 2단 투창 고배는 보이지 않으며, 2단투창고배의 퇴화형으로 보여지는 1단투창에 돌대를 돌린 것과 투창이 뚫리지 않으며 대각이 극히 소형화된 것들이 확인이 된다. 1단 투창 역시 형식적인 소형 투창이며, 각단은 투텁게 처리되었다. 개는 단추형 꼭지가 대부분이며 보주형 꼭지도 일부 확인이 된다. 개의 표면에는 삼각집선문과 원문, 반원문이 조합을 이룬 것, 삼각집선문과 수적형문이 조



도 15. I 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합을 이룬 것이 보인다. 그리고 A-가 3호 석실분 출토의 개(도 15. □~□)는 점열문으로 시문되었다. 부가구연장경호는 동체의 중간부분이 약간 편구형에 가깝고 동체에 비해 경부가 길며, 대각에는 소형의 투창이 뚫려 있다. 병(도

15. □)은 A-가 13호에서만 출토가 되었는데 대각이 매우 낮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동체는 능형에 가까운 편구형이다. 병의 경부에는 원문이 동체에는 지그재그 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그리고 합은 A-가 3호(도 15. □)와 A-가 18호(도 15. ⑦~⑨)에서 출토되었는데 대각은 八자형으로 벌어졌으며, 문양은 수적형문, 연속마제형문, 지그재그 접열문 등 이 시문되어 있다.

I 유형의 유물의 내대에 대해서 각 양식간의 선후관계는 지금까지의 토기연구성과를 통해 어느정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I 유형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적어서 각 양식 간의 자세한 편년은 어려울 것 같다. 고배는 신라지역에서 각부가 긴 상하고호투창고배가 단각고배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에 배신과 각부의 접합부분 직경이 극히 작은 일단 또는 2단투창고배가 출현한다. 이러한 토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6세기 중반이전으로 보여진다.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하는 토기들은 앞서 언급한 토기들의 다음 단계로 보여지는 단각고배들이 출토된다.⁴⁰⁾ A-가 12호(도 15. ②③), A-가 13호(도 15. □~□), H-15호(도 15. □~□) 고배는 전단계의 2단투창고배의 퇴화형으로 보여지는데 경주 방내리 50호분, 신원리 3호분, 8호분과 비슷하여 白井克也의 신라III C기⁴¹⁾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나 15호(도 15. □~□), A-가 25호(도 15. ④~⑥) 석실분의 고배는 앞서 언급한 고배에 비해 극히 소형화된 대각을 볼 때 시기가 늦은 것 같다. 그리고 개의 경우 표면에 삼각접선문과 원문류, 수적형문이 시문된 것을 볼 때, 宮川禎一의 문양변천 1a기~1b⁴²⁾에 해당될 것 같다. 그리고 A-가 3호 개(도 15. □~□)의 경우는 종장연속문의 접열문이 시문되어 있어 전자보다 시기가 늦을 것 같다. 또 부가구연장경호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볼 때 부가구연부가 수평방향으로 발달되면서 두께가 얕아지며 기형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A-가 30호 부가구연장경호(도 15. □)의 경우에는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병의 경우 대체로 동체부가 원형에 가까운 것에서 납작해져서 편구형으로 변한다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 같다. A-가 13호 출토 병(도 15. □)의 경우 동체가 극도로 납작해 져 단면 능형을

40) 朴普鉉, 「短脚高杯로 본 積石木櫛墳의 消滅年代」『新羅文化』第15輯, 1998.

이 글에서는 단각고배의 발생을 황룡사 일차가람기초유구나 폐토기물이를 기준으로 할 때, 553~569년으로 비정하고 있다.

41) 白井克也, 「新羅土器の型式・分布變化と年代觀」『朝鮮古代研究』第4 , 2003.

42) 宮川禎一, 「新羅印花文陶器の劃期」『古文化談叢』第30集(中), 1993.

이루며 경부는 납작해진 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병은 김해 예안리고분군 30호분 출토품⁴³⁾, 울주 화산리고분군 12호분⁴⁴⁾, 건천 방내리고분군 25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유물들은 청리 석실분 1유형 내의 자세한 편년은 어렵겠지만 위와 같은 점들을 통해 볼 때 6세기 후반경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토기류들의 다음단계로 인화문이 시문된 합 등 새로운 요소들이 확인된다. 합의 표면에는 지그재그 점열문과 연속마제형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이희준⁴⁵⁾은 부여 정림사지 연지에서 출토된 토기를 분석하면서 연속마제형문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7세기 후엽으로 보았다. 따라서 1유형의 합은 연속마제형문이 본격적으로 시문되기 이전 시기라고 본다면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유물의 선후관계를 통해 추가장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석실분은 A-가 13호 석실분인데, 대각이 비교적 긴 1단투창 단각고배(도 15. □~□)에는 삼각집선문과 원문류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과 동체가 편구형에 가깝고 동체의 표면에는 종방형의 지그재그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는 병(도 15. □)은 추가장시에 매납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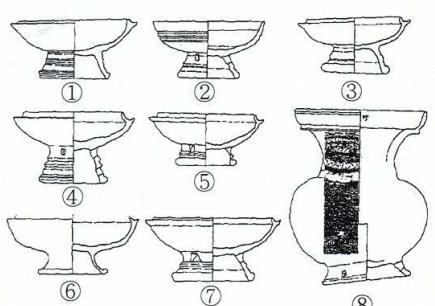
따라서 I 유형의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상한은 6세기 후반으로 보여지며 하한은 7세기 중반 경으로 보여진다. 이를 볼 때 1유형의 석실분의 축조는 6세기 후반경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석실분의 추가장을 고려할 때 언제까지 축조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A-가 3호 석실분과 A-가 18호 석실분 출토 유물을 볼 때, 지그재그 점열문이 시문된 개와 합 그리고 연속마제형문이 시문된 합 등의 I 유형 출토유물 가운데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되는 유물만 출토되어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I 유형의 축조시기를 7세기 중반까지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43) 釜山大學校博物館, 『金海禮安里古墳群Ⅱ』,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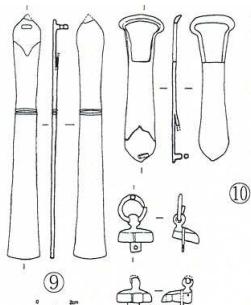
44)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州華山里古墳群』, 1983.

45) 李熙濬, 「부여 정림사지 蓮池 유적 출토의 신라 인화문토기」, 『韓國考古學報』 31輯, 韓國考古學會,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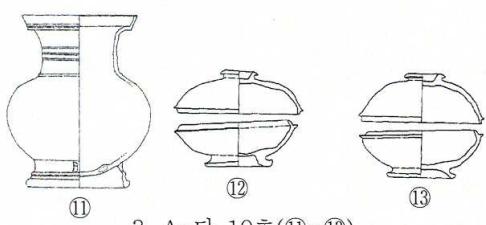
2. II 유형 출토유물(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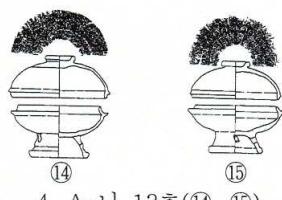
1. A-나 19호(①~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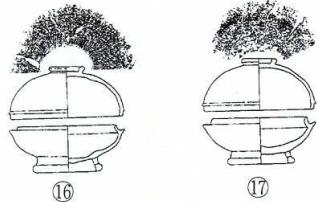
2. A-다 10호(⑨~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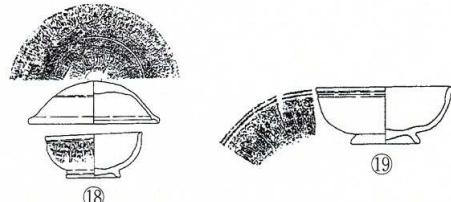
3. A-다 10호(⑪~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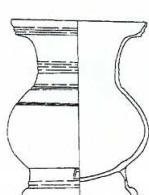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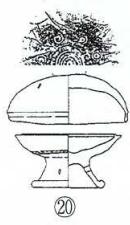
4. A-나 13호(⑭, ⑮)



5. H-1호(⑯, ⑰)



6. H-16호(⑱, ⑲)



7. H-16호(⑳~㉓)

도 16. II 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Ⅱ 유형은 연도가 있고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석실분으로 이 유형에서 출토된 유물은 I 유형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는 I 유형에서 보이지 않던 A-다 10호에서 청동제 과대금구류(도 16. ⑨□)가 출토되었다. 고배는 A-나 19호 출토품(도 16. ①~⑦)과 같이 비교적 높은 대각에 1단투창이 뚫려진 것이 확인되는 반면 H-1호(도 16. □□), A-다 10호 출토 고배(도 16. □□)와 같이 대각이 극히 낮아진 고배가 확인이 되는데 전자가 이른 시기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A-다 10호 석실분 출토 과대교구는 청동제 교구(도 16. ⑨□)는 연금과 띠연결부를 함께 제작하였으며 연금은 송이버섯모양과 비슷하다. 자금은 없으며 좌연금의 단면이 납작하고 휘어져있다. 이러한 형태는 중원 루암리 10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⁴⁶⁾ 이 한상의 3단계⁴⁷⁾와 유사하여 이 과대교구는 6세기 후반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과대교구류와 같은 석실분에서 출토된 고배(도 16. □, □)는 H-1호 고배(도 16. □□)와 유사한데 극히 낮은 대각과 개의 표면에 수적형문이 시문되어 있어 수적형문이 본격적으로 시문되는 7세기 전반경⁴⁸⁾으로 볼 수 있어 추가장시에 매납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H-16호 출토 합(도 16. □□)은 개와 동체의 표면에 지그재그 점열문이 연속으로 시문되어 있는데 7세기 중반경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출토된 부가구연장경호는 비교적 높은 대각에 타원형의 동체 등을 통해 볼 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7세기 전반 경으로 보이므로 H-16호 출토 합은 추가장시에 매납된 유물인 것 같다.

따라서 Ⅱ 유형은 유물의 양상을 볼 때, I 유형과 유사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경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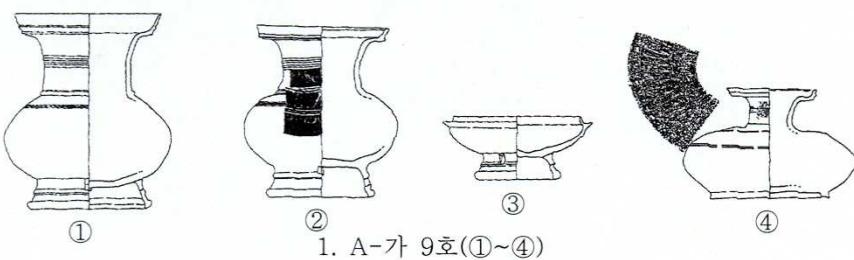
3. Ⅲ 유형 출토유물(도 17)

Ⅲ 유형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중형인 횡혈식석실분이 이에 해당되는데 출토유물의 종류는 앞서 언급한 I, Ⅱ 유형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는 청동제과대금구류가 다수 확인이 된다는 점이 이전 유형과는 다르다. 청동제 과대금구류는 A-가 9호, A-가 14호, A-다 15호, A-나 2호, A-나 9호, A-나 10호, A-다 1호석실분 등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이 중에는 2유형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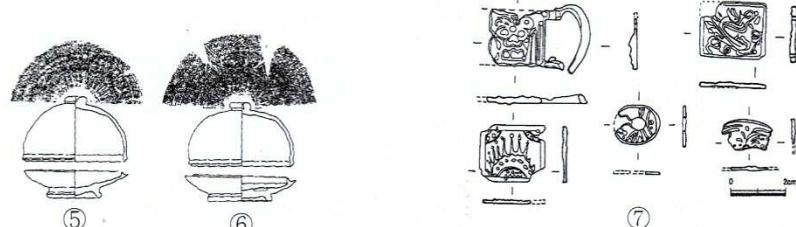
46) 忠北大學校博物館, 『中原樓岩里古墳群』忠北大學校博物館 調查報告 第38冊, 1993.

47) 李漢祥, 「6世紀代 新羅의 帶金具-‘樓岩里型’ 帶金具의 設定-」『韓國考古學報』35,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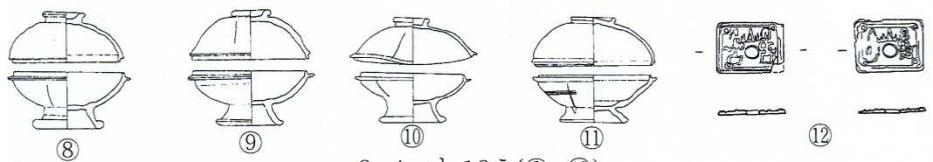
48) 宮川禎一, 「新羅印花文陶器の劃期」『古文化談叢』第30集(中),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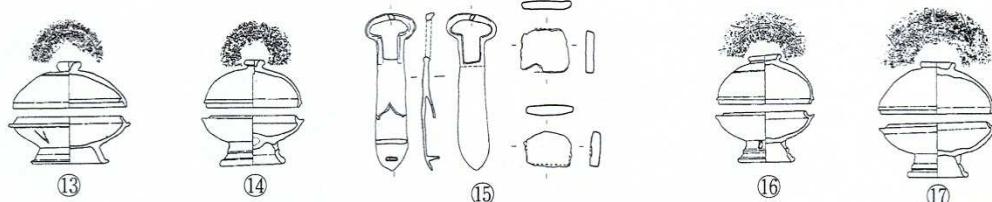
1. A-가 9호(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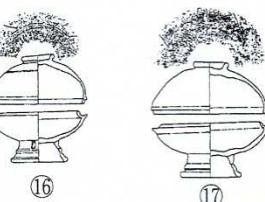
2. A-가 9호(⑤~⑦)



3. A-나 10호(⑧~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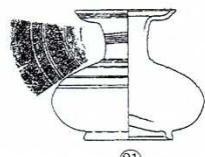
4. A-다 1호(⑬~⑯)



5. A-다 9호(⑯~⑰)



6. A-다 9호



7. H-12호(⑯~㉑)

도 17. III 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과대교구와 유사한 것이 확인이 되며 A-가 9호(도 17. ⑦), A-나 10호(도 17. □), A-나 2호 석실분에서 출토된 청동제 과판은 용문 화염문, 초화문 산수문 등이 음각되어 있다. 이러한 과대금구류는 황룡사지 심초석 아래, 김해 예안리 49호분 출토 과판과 유사한데 김창호의 편년⁴⁹⁾과 이한상의 4단계⁵⁰⁾와 유사하여 이 단계는 7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배는 A-가 9호(도 17. ③), A-다 9호(도 17. □~□) 출토품이 빠른 양식으로 보이며 A-나 10호(도 17. ⑧~□), H-12호(도 17. □) 석실분 출토 고배가 전자에 비해 늦어보인다. 전자의 고배에는 원문류와 찍은 삼각집선문, 수적형문이 조합을 이루고 있다. A-가 9호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추가장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우선 (도 17. ③)의 고배에 비해 대각이 극히 짧아진 고배(도 17. ⑤⑥)가 늦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부가구연장경호(도 17. ①)에 비해 부가구연장경호(도 17. ②)가 동체가 작아지고 경부에 수적형문과 원문류가 시문되어 있어 부가구연장경호(도 17. ②)가 늦은 시기로 생각된다. 특히 A-가 9호 석실분의 병(도 17. ④)은 H-12호 석실분 출토 병(도 17. □)에 비해 동체가 거의 편구형에 가깝고 동체에 변형된 수적형문이 시문되어 있어 7세기 중반 경⁵¹⁾으로 볼 수 있어 A-가 9호 석실분의 병은 추가장시에 매납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3유형 역시 유물을 검토해 볼 때, 대체로 6세기 후반 경에서 7세기 중반 경으로 편년된다.

4. IV유형 출토유물(도 18)

IV유형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대형인 횡혈식석실분으로 청리 유적에서 6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의 종류는 이전 단계와 유사하지만 현실의 크기에 비해 유물은 이전 유형에 비해 아주 소량만 확인된다. 고배는 A-다 4호(도 18. ⑤) 개의 표면에 삼각집선문과 반원문이 시문된 것을 볼 때 6세기 후반 경⁵²⁾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A-나 3호(도 18. ②), A-다 4호(도 18. ⑦) 출토 고배는 앞서 살펴본 고배에 비해 대각의 길이가 극히 낮아지고 각단이 두툼하게 처리되어

49) 金昌鎬, 「夫餘 外里 출토 文樣 塚의 연대」 『佛教考古學』 第2號,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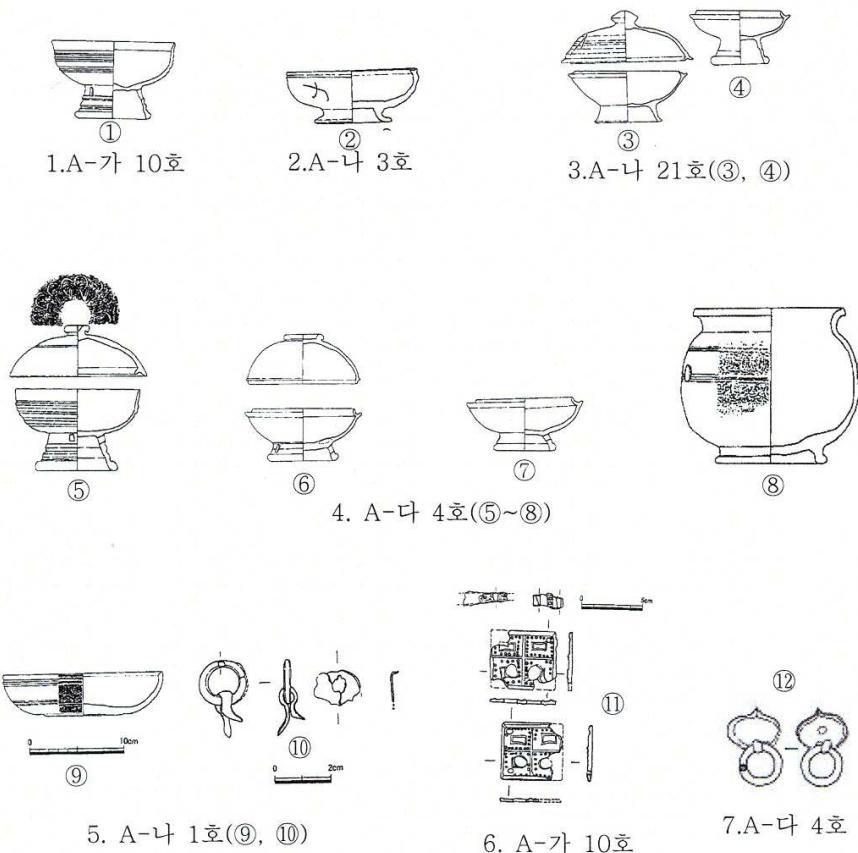
50) 李漢祥, 「6世紀代 新羅의 帶金具-‘樓岩里型’ 帶金具의 設定-」 『韓國考古學報』 35, 1996.

51) 江浦洋, 「日本出土の統一新羅系土器とその諸問題」 『太井遺蹟(その2)調査概要』 大阪文化協會, 1987.

52) 宮川禎一, 「新羅印花文陶器の劃期」 『古文化談叢』 第30集(中), 1993.

보다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청동제 과판은 A-나 1호와 A-다 4호에서 출토되었는데 역심엽형이다. 이러한 과판은 안동 임하 I 구역 3호분과 김해 예안리 49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러한 과판은 이한상의 3단계⁵³⁾와 유사하여 6세기 후반경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4유형의 출토유물을 볼 때,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보여진다.



도 18. IV유형 석실분 출토유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각 양식간의 선후관계는 지금까지의 토기 연구성과를 통해 어느정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적어서 각 양식 간의 자세한 편년은 어려울 것 같다. 신라지역에서 각부가 긴 상하고 투창고배가 단각고

53) 李漢祥, 앞의 논문, 1996.

배로 이행하는 단계에 배신과 각부의 접합부분 직경이 극히 작은 일단 또는 2단투창고배가 출현한다. 이러한 토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6세기 전반대로 보여진다.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하는 토기들은 앞서 언급한 토기들의 다음 단계로 보여지는 단각고배들이 출토된다. 단각고배의 변천을 보면 뚜껑이 깊어지고 배신이 얕아지는 경향, 배신의 구연 높이와 뚜껑의 드립부 높이가 낮아지는 경향은 경주지역의 양상과 부합될 것이다. 또 부가구연 장경호의 경우 부가구연부가 수평방향으로 발달되면서 두께가 얇아지며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한 고분군 내의 자세한 편년은 어렵겠지만 6세기 후반대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단계로 인화문이 시문된 합 등 새로운 요소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인화문이 시문된 합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속마제형문과 지그재그 점열문 등은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II, III, IV유형에서 출토된 유물을 검토해 본 결과 토기류 등의 기종은 모든 유형에서 유사하였다. 그러나 청동제 과대금구류는 II, III, IV유형에서만 출토가 되고 특히 현실의 규모가 큰 III, IV유형에서 다수의 청동제 과대금구류가 출토가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내대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석실분 자체가 추가장이 가능한 점을 볼 때 출토유물의 편년을 가지고 각 유형별 석실분의 축조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리 석실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물은 6세기 후반경에서 7세기 전반 경으로 보여지므로 이 시기에 청리 석실분의 축조가 가장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석실분의 축조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A-가 3호 석실분과 A-가 18호 석실분 출토 유물을 볼 때, 지그재그 점열문이 시문된 개, 합 그리고 연속마제형문이 시문된 합 등의 늦은시기의 유물만이 확인되어 7세기 중반까지도 일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2. 청리 석실분 현황표(현실규모 小 --> 大)

* 진한 목판체가 횡형식석실분

호 수	길 이	너 비	길이*너비	현실규모	연도위치	평면비	평면형태	호 석	비 고
A-나 14호	130	78	101.4	소형		1.67:1	장방형	1종	
H-9호	135	85	114.75	소형		1.58:1	장방형		
A-다 13호	152	79	120.08	소형		1.92:1	장방형		
A-가 18호	174	74	128.76	소형		2.35:1	장방형		
H-7호	187	75	140.25	소형		2.49:1	세장방형		
A-가 27호	201	83	166.83	소형		2.42:1	세장방형		
A-가 21호	185	95	175.75	소형		1.95:1	장방형		
A-가 33호	181	98	177.38	소형		1.85:1	장방형		
H-3호	174	102	177.48	소형		1.71:1	장방형		
A-다 8호	282	64	180.48	소형		4.41:1	세장방형		
A-나 5호	235	81	190.35	소형		2.9:1	세장방형		
A-다 6호	190	115	218.5	소형	우편	1.65:1	장방형	1종	
H-6호	204	108	220.32	소형	우편	1.89:1	장방형		
A-가 23호	230	100	230	소형		2.3:1	장방형		
A-다 16호	212	109	231.08	소형		1.94:1	장방형		
H-15호	230	103	236.9	소형		2.23:1	장방형		
A-가 8호	212	117	248.04	소형		1.81:1	장방형	1종	
A-가 30호	226	110	248.6	소형		2.05:1	장방형	1종	
A-가 5호	220	114	250.8	소형		1.93:1	장방형		
A-가 28호	211	120	253.2	소형		1.76:1	장방형		
A-나 13호	195	130	253.5	소형	좌편	1.5:1	장방형	1종	
A-나 17호	231	113	261.03	소형		2.04:1	장방형		
H-8호	216	124	267.84	소형	중앙	1.74:1	장방형	1종	
A-나 12호	230	119	273.7	소형		1.93:1	장방형		
A-가 3호	203	139	282.17	소형		1.46:1	장방형	1종	
A-나 16호	274	105	287.7	소형		2.61:1	장방형		
A-가 29호	258	112	288.96	소형		2.3:1	장방형		
A-가 19호	218	134	292.12	소형		1.63:1	장방형		
H-2호	236	124	292.64	소형		1.90:1	장방형		
A-가 26호	218	140	305.2	소형		1.56:1	장방형		
A-가 4호	238	130	309.4	소형		1.83:1	장방형	1종	
A-가 13호	228	140	319.2	소형		1.63:1	장방형	1종	

호 수	길 이	너 비	길이*너비	현실규모	연도위치	평면비	평면형태	호 석	비 고
A-가 6호	230	140	322	소형	좌편	1.64:1	장방형	2종	
A-가 25호	250	130	325	소형		1.92:1	장방형	1종	
H-1호	234	140	327.6	소형	우편	1.67:1	장방형		
A-가 22호	226	150	339	소형		1.51:1	장방형	1종	
A-가 11호	258	134	345.72	소형		1.51:1	장방형	1종	
A-나 19호	270	131	353.7	소형	우편	2.06:1	장방형	3종	
A-가 16호	242	148	358.16	소형		1.64:1	장방형	1종	
A-가 12호	258	142	366.36	소형		1.82:1	장방형	1종	
A-다 10호	265	142	376.3	소형		1.87:1	장방형		
A-나 15호	269	140	376.6	소형		1.92:1	장방형	1종	
H-13호	266	142	377.72	소형		1.87:1	장방형		
H-10호	276	140	386.4	소형		1.97:1	장방형	1종	
H-14호	254	154	391.16	소형	우편	1.65:1	장방형	이종	
H-16호	282	140	394.8	소형	우편	2.01:1	장방형	이종	
A-다 12호	273	148	404.04	중형	우편	1.84:1	장방형	1종	
A-다 9호	278	148	411.44	중형	중앙	1.88:1	장방형	이종	
A-다 5호	285	145	413.25	중형	좌편	1.97:1	장방형	1종	금동제 과판
A-가 14호	255	190	484.5	중형	우편	1.34:1	방형	1종	청동제과판, 청동제교구
A-다 15호	330	167	551.1	중형	중앙	1.98:1	장방형		청동제과대수식, 청동제교구
A-나 8호	274	202	553.48	중형	우편	1.36:1	장방형	1종	
A-가 9호	256	222	568.32	중형	중앙	1.15:1	방형	1종	청동제과판
H-12호	324	180	583.2	중형	우편	1.80:1	장방형		
A-나 11호	426	138	587.88	중형	좌편	3.09:1	세장방형	2종	
A-나 2호	348	170	591.6	중형	우편	2.05:1	장방형	2종	금동제대단금구, 청동제과판
A-가 24호	416	146	607.36	중형	우편	2.85:1	세장방형	1종	
A-가 24호	416	146	607.36	중형	우편	2.85:1	세장방형	1종	
A-나 10호	425	152	646	중형	우편	2.8:1	세장방형	2종	청동제대단금구, 청동제과판
A-다 1호	390	179	698.1	중형	중앙	2.18:1	장방형	1종	청동제과대수식, 청동제대단금구
A-나 9호	415	188	780.2	중형	중앙	2.21:1	장방형	2종	금동제과판, 은동제대단금구
A-나 21호	425	200	850	대형	우편	2.13:1	장방형	3종	
A-가 10호	468	184	861.12	대형	우편	2.54:1	세장방형	2종	청동제과판
A-다 4호	464	192	890.88	대형	중앙	2.42:1	세장방형	2종	청동제 교구, 청동제 과대금구
A-다 2호	504	185	932.4	대형	우편	2.72:1	세장방형	2종	
A-나 1호	426	232	988.32	대형	우편	1.84:1	장방형	2종	청동제과판
A-나 3호	527	194	1022.38	대형	우편	2.72:1	세장방형	4종	청동제 과판

IV. 청리 석실분의 성격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통해 상주 청리 석실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리 석실분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이글에서는 먼저 청리 석실분의 위치하는 청리유적이 군사지리적으로 고대부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음을 주변유적 현황과 입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상주지역의 고분의 양상을 볼 때 상주지역 내에서 유독 청리지역에서만 횡혈식석실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를 위해 청리 유적에서 확인된 석실분의 구조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리 유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석실분은 I 유형의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횡구식석실분이었다. 석실분의 구조에 있어서 벽석의 축조방법은 석재를 묘광과 평행되게 쌓는 가로쌓기 방법, 묘광과 직교되게 쌓는 세로쌓기 방법, 한쪽은 가로쌓기하고 다른 한쪽은 세로쌓기한 석실분 등 3가지의 방법이 함께 확인되고 있었다. 반면에 연도가 확인되는 II, III, IV유형의 석실분은 벽석의 축조 방법이 대부분 세로쌓기한 석실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벽석을 쌓는 방법에서 차이가 확인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II유형의 석실분에서 연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좌편연도와 중앙연도가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II유형의 석실분들은 I 유형의 석실분과는 달리 호석이 대부분의 석실분에서 확인되며 일부 2~3중의 호석이 돌려진 것도 확인이 되었다. III, IV유형의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중형과 대형인 석실분으로 연도의 위치는 대부분 우편에 위치하며, 호석도 2~4중으로 돌려져 있다.

그리고 각 유형별 출토유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각 양식간의 선후관계는 지금까지의 토기 연구성과를 통해 어느정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적어서 각 양식 간의 자세한 편년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유물의 편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신라지역에서 각부가 긴 상하교호투창고배가 단각고배로 이행하는 단계에 배신과 각부의 접합부분 직경이 극히 작은 일단 또는 2단투창고배가 출현한다. 이러한 토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6세기 중반 이전으로 보여진다.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하는 토기들은 앞서 언급한 토기들의 다음 단계로 보여지는

단각고배들이 출토된다. 단각고배의 변천을 보면 뚜껑이 깊어지고 배신이 얇아지는 경향, 배신의 구연 높이와 뚜껑의 드림부 높이가 낮아지는 경향은 경주지역의 양상과 부합될 것이다. 또 부가구연장경호의 경우 부가구연부가 수평방향으로 발달되면서 두께가 얕아지며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한 고분군 내의 자세한 편년은 어렵겠지만 대체로 6세기 후반대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단계로 인화문이 시문된 합 등 새로운 요소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인화문이 시문된 합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속마제형문과 지그재그 점열문 등은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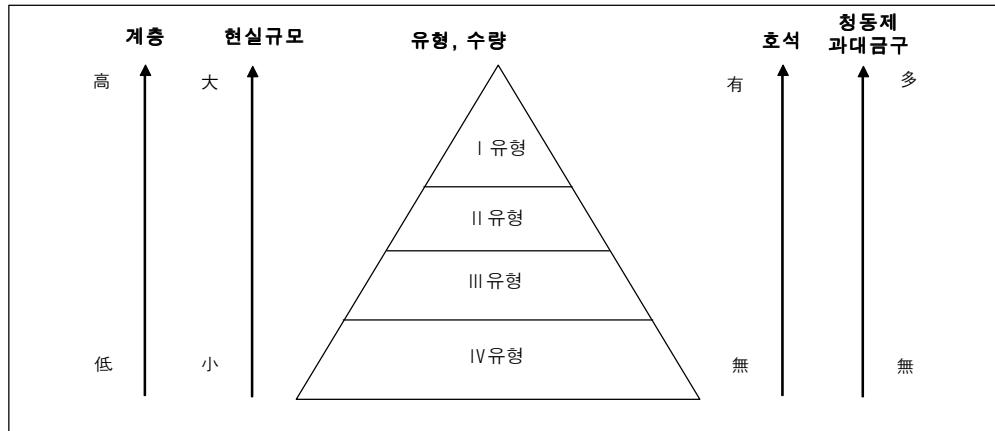
따라서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내대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석실분 자체가 추가장이 가능한 점을 볼 때 출토유물의 편년을 가지고 각 유형별 석실분의 축조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리 석실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물은 6세기 후반경에서 7세기 전반 경으로 보여지므로 이 시기에 청리 석실분의 축조가 가장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석실분의 축조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A-가 3호 석실분과 A-가 18호 석실분 출토 유물을 볼 때, 지그재그 점열문이 시문된 개, 합 그리고 연속마제형문이 시문된 합 등의 늦은시기의 유물만이 확인되어 7세기 중반까지도 일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상주 청리 석실분은 6세기 중반경부터 석실분의 축조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가장 많은 석실분이 축조가 되었으며 7세기 중반까지 축조가 계속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7세기 중반경에는 일부 석실분만이 축조가 된 것 같고 이 시기에는 추가장이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청리 석실분 출토 유물을 검토해 볼 때, 유물의 선후관계를 잘 알 수 없을 만큼 기종과 형식이 유사하여 추가장의 시간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횡구식석실분과 횡혈식석실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에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횡혈식석실분과 횡구식석실분은 현실의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횡구식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대부분 소형인 것에 비해 횡혈식석실분은 일부 소형도 확인이 되지만 대부분 중형이나 대형이다. 석실분의 규모가 석실분 축조의 비용과 노동력에 비례한다고 본다면 두 석실분의 피장자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석실분의 규모와 관련하여 호석의 여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인정된다. 횡구식석실분의 경우 대부분 호석이 확인되지 않거

나 확인되더라도 1중 호석이 대부분인 반면, 횡혈식석실분의 경우 대부분 호석이 확인되고 이 가운데에는 2~4중의 호석이 돌려진 것도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호석은 봉분의 유실을 막는 의도로 축조하는 것으로 호석의 유무는 현실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석실분의 축조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석실분의 묘역 면적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로 판단이 된다. 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볼 때 횡혈식석실분이 횡구식석실분에 비해 피장자의 계층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 20. 청리 석실분 계층성 모식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출토유물을 검토하는 가운데 횡혈식석실분 가운데에서도 표 2와 같이 현실의 규모가 크고 호석이 2~4중 돌려진 석실분에서 유독 청동제 과대금구류가 출토된다는 것이다. 청동제 과대금구류가 지배계층의 전유물⁵⁴⁾이라고 볼 때, 청리 석실분에서는 현실의 규모가 크며, 호석이 2~4중이 돌려진 횡혈식석실분에 묻힌 피장자들은 높은 계층의 피장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⁵⁵⁾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청리 석실분의 유형별 계층성의 모식도로 나타내면 위의 도 20과 같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의 내용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상주지역과

54) 『三國史記』卷33, 雜志, 色服條. 여기에서는 골품에 따라 명확한 차별을 두어 진골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요대 착용규정이 나타나 있다. 과대금구류가 지배계급의 전유물이라는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

李漢祥, 「6世紀代 新羅의 帶金具 -‘樓岩里型’ 帶金具의 設定」 『韓國考古學報』 35, 1996.

李漢祥, 「7世紀 前半의 新羅의 帶金具에 대한 認識」 『古代研究』 7, 古代研究會, 1999.

55) 朴普鉉,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構造』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고분의 부장품은 피장자의 상징물을 매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적 양상, 특히 신분의 차이를 현저하게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상주 청리지역에 대한 문헌자료이다.

- ① “…法興王十一年, 梁普通六年, 初置軍主爲上州…”
- ② “…十二年春二月 以大阿 伊登 爲沙伐州軍主…”
- ③ “…青驥縣 本音里火縣 景德王改名 今青里縣…”
- ④ “…太宗武烈王 七年 夏五月二十六日 王與庾信·真珠·天存等領兵出京
六月十八日 次南川停…王次今突城”
- ⑤ “三月 罷一善州復置沙伐州以波珍官長爲摠管”

먼저 ①의 기록⁵⁶⁾과 같이 “尙州에 군주를 두고 上州로 삼았다”는 것은 尚州에 上州를 두어 신라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긴 서북방일대의 회복과 대백제 견제의 의미가 포함된 북진책의 강한 의사표시라 할 수 있겠다.⁵⁷⁾ 또한 ②의 기록⁵⁸⁾ “대아찬 이등을 사벌주 군주로 하다” 역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③의 자료는 진홍왕 5년(544)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10停이 설치되었는데 그 중 하나인 音里火停⁵⁹⁾이 지금의 상주 청리지역이었다는 것⁶⁰⁾ 등을 볼 때, 청리지역은 상주의 停이 설치된 군사요지로서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④의 기록⁶¹⁾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무열왕이 금돌성까지 행차하였다”는 내용인데 금돌성은 상주 모동면 수봉리 백화산에 있는 석성이라고 한다.⁶²⁾ 특히 청리지역은 모동지역을 통해 백화산의 금돌성으로 가는 길과 상주와 김천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상주 청리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⑤의 기록은⁶³⁾ “일선주(지금의 구미지역)를 폐지하고 다시 사벌주를 두어 파진찬 관장을 총관으로 삼았다”라는 것 역시 통일이후까지 군사적, 지리적으로 상주는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⁶⁴⁾

56) 『三國史記』卷34, 雜志 三, 地理 一, 尚州.

57) 韓基汶, 「人文·歷史의 背景」 『古代 沙伐國 文化遺蹟 地表調查 報告書』, 1996.

58)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4 法興王條.

59) 『三國史記』卷40, 職官 下, 武官.

60) 『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 三, 地理 一, 尚州.

음리화정의 위치에 관련해서는 曺喜烈, 「音里火停 位置 考察」 『尚州文化研究』第10輯, 2000. 참조
진홍왕 5년(544)에 音里火停이 설치되었지만 이는 10停이 설치되기 시작한 때이며, 그 완성시기는
통일신라 초기로 추측된다. 韓基汶, 앞의글, 1996.

61)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5 太宗武烈王 7年.

62) 鄭永鎬, 앞의 논문, 1972.

63)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神文王 七年條.

이러한 양상을 통해 볼 때, 상주 청리지역에서의 횡혈식석실분의 등장은 위의 문헌기록에 나오는 군사조직인 停과 관련된 높은 계층의 묘제와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글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상주지역에서 확인된 상주 병성동, 헌신동, 성동리, 신흥리 고분군⁶⁵⁾ 등에서는 6~7세기 대의 다른 묘제⁶⁶⁾는 확인이 되지만 연도가 확인되는 횡혈식석실분이 아직까지 청리지역 외에는 확인되지 않은 점도 위와 같은 추정을 짐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청리 횡혈식석실분의 피장자에 대해 이미 논의된 바에 의하면 사민정책에 의한 것이란 것⁶⁷⁾과 토착세력에 대한 중앙의 예우⁶⁸⁾로 보는 의견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횡혈식석실분에서 출토된 청동제대금구와 묘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 권4의 내용에 외관들은 가족을 거느리고 임지에 부임하는 것을 하락하였다⁶⁹⁾는 내용들을 통해 볼 때, 토착세력에 대한 중앙의 예우이기 보다는 군사적 성격을 띤 지방관의 파견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상주 청리지역 뿐만이 아니라 당시 6~7세기 대의 군사지리적인 요충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분포하는 묘제와 출토유물을 아울러 검토할 때 어느정도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64) 李泳鎬, 앞의 논문, 2006.

6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尙州 新興里古墳群(I ~ V)』, 學術調查報告 第7冊.
신흥리고분군 보고서에 의하면, 석실분은 모두 45기가 조사되었다고 하며 모두 횡구식석실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라-1호를 홍보식은 횡혈식석실분으로 보았다.
洪澤植, 『6~7世紀代 新羅古墳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66) 석곽묘와 횡구식석실묘이다.

67) 김창호는 상주 청리 횡혈식석실분의 등장을 금석문의 해석을 통해 사민정책의 하나인 둔전촌인 성격의 인구이동이라고 판단하며, 그 무덤도 신라인의 이동에 의해 축조된 예로 보고 있다.
金昌鎬, 「嶺南地方 橫穴式石室墳 研究에 대한 몇가지 提言」 『嶺南考古學』 22號,, 1998.

68) 박보현은 청리 횡혈식석식분에 묻힌 피장자는 신라인의 이동이 아닌 토착세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토착세력에 대한 관리예우라고 보고 있다.
朴普鉉, 「統一新羅型 帶金具의 分布와 發生時期」 『新羅文化』 第23輯, 2004.

69)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25年條 “敎許外官携家之任”.

V. 맷음말

이 글의 맷음말은 각 장별로 정리하여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 청리 석실분의 입지를 살펴본 결과 청리 석실분이 위치하는 이 지역은 군사지리적으로 고대부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리 유적에서 확인된 석실분의 구조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리 유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석실분은 I 유형의 현실의 규모가 소형인 횡구식석실분이었다. 반면에 연도가 확인되는 II, III, IV 유형의 횡혈식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횡구식석실분에 비해 대부분 대형에 속하는 것들이 다수였다. 연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좌편연도와 중앙연도가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II, III, IV 유형의 석실분들은 I 유형의 석실분과는 달리 호석이 대부분의 석실분에서 확인되며 2~3중의 호석이 돌려진 것도 확인이 되었다. 특히 III, IV 유형의 석실분은 현실의 규모가 중형과 대형인 석실분으로 연도의 위치는 대부분 우편에 위치하며, 호석도 2~4중으로 돌려져 있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각 유형별 출토유물의 편년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청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내대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석실분 자체가 추가장이 가능한 점을 볼 때 출토유물의 편년을 가지고 각 유형별 석실분의 축조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리 석실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물은 6세기 후반경에서 7세기 전반 경으로 보여지므로 이 시기에 청리 석실분의 축조가 가장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주 청리 석실분은 6세기 중반경부터 석실분의 축조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가장 많은 석실분이 축조가 되었으며 7세기 중반까지 축조가 계속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7세기 중반경에는 일부 석실분만이 축조가 된 것 같고 이 시기에는 추가장이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청리 석실분 출토 유물을 검토해 볼 때, 유물의 선후관계를 잘 알 수 없을 만큼 기종과 형식이 유사하여 추가장의 시간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IV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청리 석실분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문헌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청리 석실분에 문헌 피장자의 계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청리 석실분에서는 현실의 규모와 호석의 유무, 청동제 과대금구류의 부상에 따라 횡구식석실분과 횡혈식석실분의 양상은 차이가 확인이 되었다.

현실의 규모가 크며, 호석이 2~4중이 돌려지고 청동제 과대금구류가 부장된
횡혈식석실분에 묻힌 피장자들은 높은 계층의 피장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를 문헌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군사적 성격을 띤 지방관의 과견과
관련된 높은 계층의 묘제와 관련될 것이라 보았다.

〈參考文獻〉

1. 史料

『三國史記』, 『三國遺事』

2. 報告書

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尙州 屏城洞古墳群』學術調查報告 第8冊, 2001.

-----, 『尙州 軒新洞古墳群』學術調查報告 第31冊, 2003.

-----, 『尙州 城洞里古墳群II』學術調查報告 第32冊, 2003.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州華山里古墳群』, 1983.

-----, 『金海禮安里古墳群II』, 1993.

忠北大學校博物館, 『中原樓岩里古墳群』忠北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 第38冊, 199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靑里遺蹟(I~VIII)』, 學術調查報告 第8冊, 1998.

-----, 『尙州 靑里遺蹟(IX·X)』, 學術調查報告 第14冊, 1998.

-----, 『尙州 靑里遺蹟(XI)』, 學術調查報告 第27冊, 1998.

-----, 『尙州 新興里古墳群(I~V)』, 學術調查報告 第7冊, 1998.

-----, 『尙州 城洞里古墳群』, 學術調查報告 第40冊, 1999.

-----, 『尙州 屏城洞·軒新洞古墳群』, 學術調查報告 第107冊, 2001.

3. 單行本

金龍星, 『新羅 高塚과 地域集團』, 춘추각, 1998.

尙州文化院, 『尙州의 文化遺蹟』, 1997.

尙州市·慶尚北道文化財研究員, 『文化遺蹟分布地圖』, 2002.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1992.

4. 論文

강인구, 「신라고분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보정」 『선사와 고대』 1, 1991.

- 姜賢淑, 「경주에서 횡혈식석실분의 등장에 대하여」『신라고고학의 제문제』, 제 20 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1996.
- 김대환, 「신라 고총의 지역성과 의의」『新羅文化』第23輯, 2004.
- 김원룡, 「백제고분에 대한 몇 가지 관찰」『백제연구』개교 30주년 기념 특호, 1982.
- 김용성, 「新羅의 高塚社會」『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요지 동아시아 대형 고분의 출현과 사회변동』第11輯,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 金昌鎬, 「嶺南地方 橫穴式石室墳 연구에 대한 몇가지 提言」『嶺南考古學』22號, 1998.
- , 「新羅 村落(屯田)文書의 作成 年代와 그 性格」『史學研究』제62호, 2001.
- , 「夫餘 外里총토 文樣擣의 연대」『佛教考古學』第2號, 2002.
- , 「신라 橫穴式石室墳의 등장과 소멸」『新羅史學報』第 8輯, 2006.
- 朴普鉉,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構造』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 , 「短脚高杯로 본 積石木櫛墳의 消滅年代」『新羅文化』第15輯, 1998.
- , 「統一新羅型 帶金具의 分布와 發生時期」『新羅文化』第23輯, 2004.
- 山本孝文, 「고분자료로 본 신라세력의 호서지방 진출」『호서지방 신라문화의 이해』, 2001.
- , 「百濟 泗沘期 石室墳의 階層性과 政治制度」『韓國考古學報』47, 2002.
- 李盛周, 「技術, 埋葬儀禮, 그리고 土器樣式-尙州地域 洛東江以東 土器樣式의 成立에 대한 解釋-」『韓國考古學報』52, 2004.
- 李泳鎬, 「上州」의 州治 이동에 대하여」『尙州文化研究』제16집, 2006.
- 李秦始, 『新羅 橫穴式石室墓의 埋葬空間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李漢祥, 「6世紀代 新羅의 帶金具 -‘樓岩里型’ 帶金具의 設定」『韓國考古學報』35, 1996.
- , 「7世紀 前半의 新羅의 帶金具에 대한 認識」『古代研究』7, 1999.
- 李熙濬, 「부여 정림사지 蓮池 유적 출토의 신라 인화문토기」, 『韓國考古學報』31輯, 1994.
- , 『4~5世紀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鄭永鎬, 「金庾信의 百濟攻擊路 研究」『史學志』6, 1972.
- , 「尙州방면 및 秋風嶺 北方의 古代交通路 研究」『國史館論叢』 第16輯, 1990.
- 曹永鉉, 『三國時代 橫穴式石室墳의 系譜와 編年 研究 -漢江 以南 地域을 中心으로 -』,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曹喜烈, 「音里火停 位置 考察」『尙州文化研究』第10輯, 2000.
- 崔秉鉉, 「新羅 石室古墳의 研究-慶州의 橫穴式石室을 중심으로」『崇實史學』第5輯, 1988.
- 최진녕, 『5~6世紀 尙州地域 古墳 研究』,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韓基汶, 「人文・歴史的 背景」『古代 沙伐國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6.
- 洪潘植, 『6~7世紀代 新羅古墳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홍지윤, 『嶺南西北部地域 初期政治體의 動向』,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 「상주지역 5세기 고분의 양상과 지역정치체의 동향」『嶺南考古學』32, 2003.

5. 國外論文-日本語

- 江浦洋, 「日本出土の統一新羅系土器とその諸問題」『太井遺蹟(その2)調査概要』大阪文化協會, 1987.
- 宮川禎一, 「新羅印花文陶器の劃期」『古文化談叢』第30集(中), 1993.
- , 「新羅印花文土器の文様分析-慶州雁鴨池出土土器の検討」『朝鮮古代研究』第2號, 2000.
- 白井克也, 「新羅土器の型式・分布變化と年代觀」『朝鮮古代研究』第4号, 2003.
- 北野耕平, 「棺・槨・室・壙について」『羽曳野市史』2, 1994.

A Study of stone Chamber Tombs of Sangju Chung li 6~7century

Kim Jin Hyung

Dept. of Cultural Resource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Abstract)

The eagle Sangju Chung li to investigate the aspect regarding at stone Chamber Tombs which are confirmed from the ancient tomb army. Chung who Chung li stone Chamber Tombs is located from the eagle first li the ruins did not put on and military geography from ancient times strategy quite to observe the place which is important was with circumference ruins present condition to lead it tried. When and seeing the aspect of the ancient tomb of the Sangju area which excavation is investigated until now, it did the problem proposal to only Chung li only the area Hyel stone Chamber Tombs width appearing from inside the Sangju area. And structure of stone Chamber Tombs which hazard Chung li are confirmed the investigation against like this problem proposal from the ruins with 4 branch shedding of blood and to observe it led and it shared it tried. That result Chung li stone Chamber Tombs which hold do a most many ratio from the ruins were the horizontal Hyengu stone Chamber Tombs where the size of actuality of I shedding of blood is small-sized. II when it tries to observe the location of year from stone Chamber Tombs of shedding of blood and the left side year and center year are confirmed part, most it was located in the right. And stone Chamber Tombs of II shedding of blood three thread sections of I shedding of blood Hu three was confirmed differently from stone Chamber Tombs of most and part 2 - 3 public opinion lake three turned and the position thing became the confirmation. III, stone Chamber Tombs of IV shedding of blood the size of actuality

medium size and to turn in three degree 2 - 4 in stone Chamber Tombs which are a formation location of year is located in most mail, Hu it is coming. And it tried to investigate the chronology of each shedding of blood star excavation remains. That result Chung li stone Chamber Tombs building 6 century middle neck area sprouting stone Chamber Tombs becomes accomplished initially and until 7 century middles where stone Chamber Tombs which are many most had become building there was a possibility the fact that building is continued. But it will appear to 7 century middle light part three thread parturitions to be becoming building and to this time the additional market will be many and it is guessed. When also Chung li trying to investigate stone Chamber Tombs excavation remains, the possibility of knowing the first and last relationship of the remains well as there will not be emphysema and a type and to be the beginning of history the additional funeral hour car it does not grow so with the fact that. And the difference point was confirmed Hyel from structure and the excavation remains of stone Chamber Tombs of horizontal Hyengu three thread section widths. Hyel Three thread section horizontal Hyengu stone Chamber Tombs width are visible a difference first from size of actuality. The horizontal Hyengu stone Chamber Tombs size of actuality most compare in being small-sized and Hyel stone Chamber Tombs width becomes the part small-sized confirmation but most medium size or are formation. That the size of stone Chamber Tombs is proportionate in expense and labor power of stone Chamber Tombs building, it will be able to think the difference of the blood eldest son of two stone Chamber Tombs if it sees and it appears. Also it relates with the size of stone Chamber Tombs and the difference of which degree is recognized even from yes or no of Hu three. Case most lake three of horizontal Hyengu stone Chamber Tombs is not confirmed, in the other side where lake 1 three is most, Hyel case most lake three of stone Chamber Tombs width is confirmed and to this middle 2 - 4 public opinion lake three turns and the position thing majority it is confirmed it is a point. Hu three with the fact that it builds in the intention which closes lose to the waves of building a mound over a grave presence of Hu three becomes the judgement with the facility which is important relates

with the graveyard area of the labor powers which with size and sameness of actuality become disturbance in building stone Chamber Tombs and stone Chamber Tombs. When the finally with above seeing same point field, Hyel stone Chamber Tombs width compare at horizontal Hyengu stone Chamber Tombs and that the class of the blood eldest son is high, will be the possibility of seeing. It will reach and the middle width where it will be able to support investigates the excavation remains Hyel the size of actuality is big from as much as stone Chamber Tombs middles and Hu three bronze my exaggeration gold arrest is only excavated is the thing from stone Chamber Tombs of turning positions in 2 - 4. When bronze my exaggeration gold arrest as the whole milk water of governing class seeing, Chung li the size of actuality was big from stone Chamber Tombs, Hu three turned and in 2 - 4 position width Hyel it is the blood eldest son of high class it will be able to guess the blood eldest sons who are buried at stone Chamber Tombs. Like this aspect when trying to lead, Sangju Chung li Hyel the appearance of stone Chamber Tombs of width from the area related with the which is a military system which comes out to dignity literature recording will not relate with grave me of high class. Also investigation of literature data it led and with dispatch of the region tube which wears military character it saw.